

겨자씨

2020 겨울호

올해의 표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목차

- 3 목사님 컬럼 - “겨울 이야기” / 이승태 목사
- 5 독자 컬럼 - “My Utmost for His Highest by Oswald Chambers” / 광명철 집사
- 7 독자 컬럼 - “경쟁의 종말” / 엄두간 집사
- 13 독자 컬럼 - “성경 읽기” / 광명철 집사
- 22 교회 소식 -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안수집사회) / 맹주일 집사
- 24 교회 소식 - “EM 대학생 섬김 사역” / 한현주 집사
- 28 교회 소식 - “감사의 글” / 이종순 권사
- 29 문화 산책 - “미소” / 엄두간 집사
- 30 문화 산책 - “The Social Dilemma (소셜 딜레마)” / 김상보 장로
- 35 간증문 -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만나는 그 자리...” / 김광섭 집사
- 37 간증문 - “좌충우돌 미국 정착기” / 김상범 전도사
- 42 AKPC 새 교역자 소개
- 44 2020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AKPC) 교육학교 조직도
- 46 간증문 - “교회 카페 그리우신가요?” / 신미진 집사
- 48 간증문 - “치유 상황 보고: 생명의 길” / 김하철 목사
- 50 간증문 - “나의 삶의 인도자” / 박재용 집사
- 52 간증문 -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 이희정 전도사
- 56 간증문 - “All I Need” / Jesse Jun
- 60 목장 소개 - “실로암 가정 목장” / 홍세미 집사
- 62 선교 통신 - “선교 서신” / 조종화, 조혜선 선교사
- 66 선교 통신 - “베트남 선교” / 박세계 선교사
- 69 선교 통신 - “페루 선교” / 김성일, 김성숙 선교사
- 71 선교 통신 - “기도 편지” / 한준수, 이옥희 선교사
- 74 선교 통신 - “니카라과 쭈쭈바 사랑” / 김인선 선교사
- 76 선교 통신 - “기도 편지” / 김명환, 남화수 선교사
- 78 편집자 후기
- 80 AKPC 2020년 겨울행사
- 81 AKPC 지역 광고

AKPC 겨자씨 문서 선교팀
제 4호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주소: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 512-454-1727
Fax 512-454-6888

발행인: AKPC 어스틴 한인 장로 교회

편집인: 광명철 김선욱 동지현 손성태 엄두간
오선주 이인권 전해나

E-mail akpc@akpc.org
Web https://www.akpc.org



이승태 목사

겨울은 밤이 길다.
밤은 잠을 경험하기에 좋다.
그리고 잠은 우리에게 꿈을 가져다 준다.
겨울은 보는 것보다 듣기에 좋은 계절이다.
겨울은 말하기 보다 생각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겨울은 벗기는 것보다 덮어주기에 좋은 계절이다.
겨울은 뭉쳐 다니기 보다 혼자 있기에 좋은 계절이다.

겨울의 절정은 눈이다.
눈은 다른 모든 것을 하나로 덮어 잠재운다.
다른 것을 물리치고 용납하지 않는다.
희다는 것은 거룩한 영역의 다른 표현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은 눈으로 다른 자기를 만들어 놓는다.
눈은 아름답게 왔다가 조금 지나면 금방 더러워진다.
그것은 이 바닥이 얼마나 더러워져있었나를 말하고 있다.
인간이 잊고 있었던 추함을 폭로하는 것이다.
인간의 더러움을 마치 십자가처럼 짊어지고는 사라진다.
또 하나는 그 차가움 속에도 살아남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간에게는 또 다른 겨우살이가 있다.
권력의 겨울도 오고 육체의 겨울도 온다.
만남의 겨울도 오고 사랑의 겨울도 온다.
심지어 믿음의 겨울도 온다.
겨울은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존 비법을 일러준다.
그들은 외부로 부터 최소한의 손실을 차단하였다.
그래서 아쉽지만 역할을 마친 것을 이미 포기하였다.
그 대신 아름다운 빛깔을 선물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낙엽이다.
이 겨울에 떠나간 낙엽을 생각하면 종교적이기까지 하다.

겨울을 음악으로도 말할 수 있다.
사실 보지 못하는 음악 경험은 허영이며 교만이다. 그리고 안 타깝다.
비발디(Vivaldi)의 “사계절”(Four Seasons)을 들으면 보이는 것이있다.

목사님 컬럼

겨울 이야기

그의 겨울은 얼음 판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 조심 걷는다.

그러다 쿵하고 넘어진다. 또 일어선다. 또 쿵, 넘어진다.

바람끼리 이리 저리 뒹굴고 서로 부딪치며 싸운다.

그 할이 네 개의 줄 위를 파도처럼 덮친다.

이 예술에 두 가지 재료는 음표와 심표이다.

시간이 생명인 이 예술에 멈춤이 있다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미술 속에 담긴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분노할 일이다.

귀를 놓친 미술 경험은 반은 빼 먹은 것이다.

말씀을 만날 때는 눈 뿐 아니라 귀가 있어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떻게 들느냐는 깊이와 정확도에 관한 문제이다.

성령은 명령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물론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향기로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다.

이것들을 통하여 이야기가 엮어진다.

그것이 곧 믿음이며 사랑이며 소망이다.

이 즈음 코비드 19는 우리를 혼자있게 만들어 놓는다.

들릴 때는 보라하고 보일 때는 들으라한다.

행복과 성숙, 그리고 꿈과 은총을 위하여 낙엽을 만들라한다.

그리고 더하기 보다 빼기를 가르친다.

달히면 반드시 열리는 것이 있는 까닭이다.

용기와 꿈을 보여준다. 이 겨울 그 이후에야 봄이 오는 까닭이다.

일본 침략 통치의 구두 발이 조선을 짓밟고 있는 혹독한 겨울이 있었다.

그 때 “성서조선”이라는 잡지가 있다.

그것은 “조선의 기독교”를 강조하는 작은 잡지이다. 약 15년의 줄기찬 저항으로 버티다가 끝내 강제 폐간된다.

그 폐간호 머릿글에 김교신은 “조와”(“ ”-“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함”)을 올린다.

마지막 구절이 환난에 대한 저항적 절규이며 희망이다.

“봄비 쏟아지던 날 새벽, 이 바위틈의 얼음 덩어리도 드디어 풀리는 날이 왔다.

오래간만에 친구 개구리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연못 속을 구부려 찾아보았더니

오호라, 개구리 시체 두세 마리가 연못 꼬리에 동동 떠다니고 있지 않은가!

짐작컨대 지난 겨울의 비상한 혹한에 연못의 적은 물이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예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얼어 죽은 개구리의 시체를 모아 매장하여 주고 보니 연못 바닥에 아직 두어 마리가 기어 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목사 이승태

독자 컬럼

“My Utmost for His Highest by Oswald Chambers”

곽명철 집사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 평안과 기쁨이 넘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이 되시길 간구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이 매일 ‘주님과의 의미 있는 교제하는 삶’이 되는데 도움이 될 365일 묵상집 하나를 소개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My Utmost for His Highest’ 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Christian Booksell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지난 80년간 최장의 베스트셀러중의 한 권으로서, 영어 원문뿐 아니라, 한국어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두란노)’와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 (브니엘)’등 최소한 2~3가지의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명의 음반이 있는데, CCM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앨범으로, 1995년 출시이후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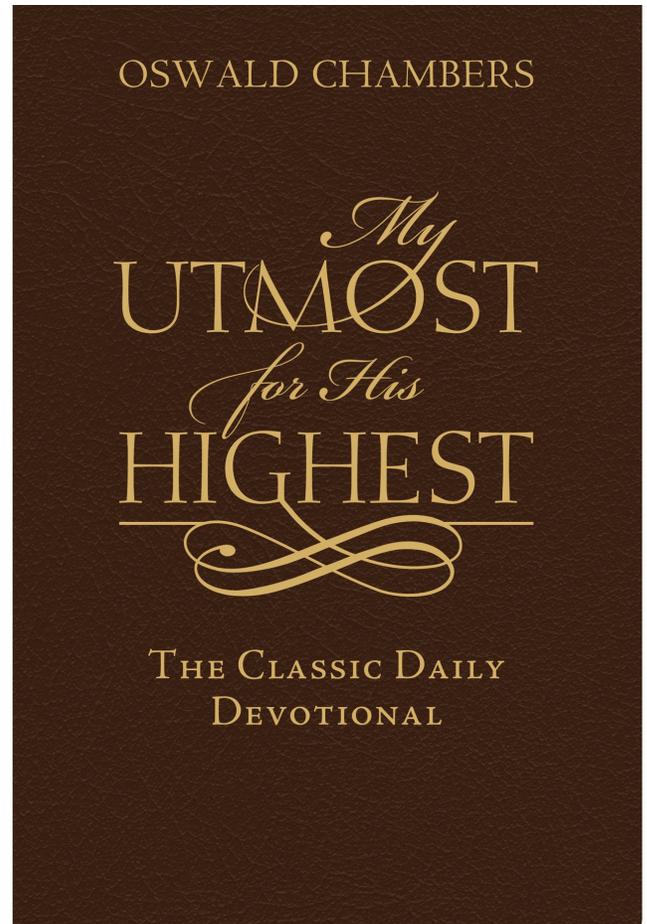
Oswald Chambers (1874-1917)는 영국 애버딘 출신의 위대한 복음주의 순회선교사이자 성경해석 학자로서, 원래는 미술학도 이었지만, 스피전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후, 침례교 목사가 되었으며, 런던 성서훈련학교 교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향한 역동적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1차 세계대전 당시 군목으로 복무하던 중 43세에 전사하

여 불꽃같이 짧은 생을 마쳤지만, 사후 미망인에 의해, 그의 성경연구내용과 설교는 30여권의 책으로 출간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지성과 뜨거운 영성을 가진 영적 거인’이라 불리는 그의 대표작인 ‘My Utmost for His Highest’은, 챔버스 목사 생전의 설교와 강의를 선별해 매일 한 페이지씩 읽고 묵상할 수 있게 1년분으로 편집된 묵상집으로, 첫 출간이후 지금까지 오랫동안 크리스천들의 신앙과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며 한 세기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이자, 고전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책만큼 오랜 세월을 걸쳐 많은 크리스천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낸 책은 그리 흔치 않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신앙의 본질은 외향이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역설하고, 인격과 하나님의 관계를 세롭게 조명하였습니다. 이 책은 간결한 문체, 심오하고 풍부한 영성, 예리한 지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전 할 것이며, 축복의 근원을 일깨워주고, 독자들의 내면이 성장하도록 도와,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나은 삶을 살게 참된 ‘영적 친구’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IN TOUCH MINISTRY’의 설립자이자, 남침례교단 총회장을 지내고, 애틀란타의 제일 침례교 담임 목사로도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

가인 Charles Stanley의 이 책에 대한 소개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나의 삶에 가장 심오한 영향을 끼친 책이다. 이 책은 나의 매일의 삶에서 영의 양식이 되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자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를 심어주셨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진리 말이다. 오스왈드 챔버스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매우 드물다. 더군다나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것처럼 탁월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이 책의 내용은 단순히 칭송받는 보화가 아니라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할 매우 귀중한 메시지다.” - 찰스 스탠리



독자 컬럼

“경쟁의 종말”

엄두간 집사

“**모** 조건 1등 해라.” “대학은 무조건 서울로
두 가라.”

어릴 때부터 모두가 많이 들으며 자란 말들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생산 자원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상하층의 유일한 이동 수단이 학문적 성취였던 시기에 사회에 편만했던 가치체계로 인한 사고의 편중이 빚어낸 말들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학문적 성취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사실 작금에는 학문적 성취가 부나 명예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이제는 힘들어져 버린 세태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좌절을 겪는 젊은 세대가 집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확천금의 꿈을 꾸거나 아니면 병리적 쾌락으로 사회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략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사회적 성취의 척도인 부와 명예는 이제 부라는 일차원적인 가치 척도로 변모하고 있으며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자만 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은 교육에 의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기성세대의 큰 숙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양에서 들어온 미성숙했던 자본주의가 동양에서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 가면서 부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도 이제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가치들이 이제는 새로운 가치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중 단연 으뜸은 신자유주의라는 금융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한국사회에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일 텐데 개발도상국 시절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계급 이동이나 부의 축적을 일궈 내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선진국 형태의 부의 축척 패턴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어릴 적 도덕책에서 최영 장군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평생의 가르침이라 배웠습니다. 사실 이 말은 부와 명예를 돌처럼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집현전 태학사를 지낸 가문 출신으로 온갖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던 최영 장군이 돌이 품고 있는 기품을 모를 리 없었고 그의 아버지는 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학문적 양심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자칫 국가 지존에 버금가는 권력과 부를 유산으로 받아서 살아갈 아들에게 겸손의 미덕을 가르친 명언이라 생각됩니다만 어릴 적부터 “돈을 밝히면 못쓴다.”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라는 말들을 들으며 자라 온 기성세대들은 어쩌면 돈의 가치를 알아도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아직도 한국에서는 많

은 사람들이 노년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년빈곤층의 지속적인 성장!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지위재와 비지위재 사이에서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위재란 집, 자동차, 결혼식 등과 같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소비재를 의미하고 비지위재란 안전이나 노후 대책 등과 같이 지위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소비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로버트 프랭크라는 코넬대학 경제학 교수는 지위재와 비지위재를 균형 있게 또 지혜롭게 소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경쟁의 종말이라는 명저를 저술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비지위재에 대한 소비를 지위재보다 더 많이 소비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치 않는 과시욕에 사로잡혀 지위재에 대한 소비를 낭비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쟁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로버트는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고전적 의미에서의 자유주의자들과 다윈의 관점에서 본 통제경제를 비교하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통제되는 현대의 시장경제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의 하나로 꼽는 것은 비효율적인 정부의 낭비적인 지출로 세금이 오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 크기는 최대한 줄이고 세금도 최소화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적절한 국가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의 낭비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낭비이며 이는 지위재에 대한 소비에 열을 올리는



민간부문의 소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자들은 강한 정부가 안전 규제 등을 강화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조세를 통해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산업 안전 규제를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므로써 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사회 잉여가치를 정부가 허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들은 “당신들의 돈은 당신들에게로”라는 모토로 유명한 조비 부시 대통령의 세금 감면정책에 공감하면서 사회 시스템의 불균등한 정황보다는 자신들이 누릴 절대 가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지하게 된 것이라 설명합니다.

다윈의 관점에서 본 통제경제란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다윈주의라 함은 대부분 약육강식의 치열한 자연세계의 논리가 인류의 경제사회 시스템에 적용되어 빈익빈 부익부가 당연하다는 식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이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다윈이 주창한 이론들은 실로 다양한 관점에서 기존의 사회 경제적 관점을 뒤집을 만한 많은 이념들을 아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개인과 집단의 이익이 상반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계의 변화 양상에 대한 그의 관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코사슴이라는 동물은 필요 이상으로 큰 뿔로 유명

한데 체격에 비해 거대한 뿔로 인해 목숨을 경주해야 할 비상시에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큰 뿔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는 다른 수컷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생식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진화된 탓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개인적인 관점과 집단의 관점에서 그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는 허다한 법인데 인간사회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일률적인 자유주의적 관점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안전문제를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잉여투자금을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려 주는 데 쓰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로 인한 상해나 인명손상은 월급의 증가로 누리는 이익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겠지요.

경쟁의 종말에서는 민간부문의 비지위재의 소비에 대한 낭비를 막는 방법(안전, 의료체계 소홀로 인한 생명 소실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국가에 의한 규제와 세금입니다. 즉, 적절한 규제를 통해 민간부문의 반드시 필요한 비지위재 소비를 늘리고 세금을 통해 민간 차원의 지위재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금을 통해 지위재의 낭비를 줄인다는 것은 예를 들어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여 사치소비재와 같은 지위재 소비를 줄이고 늘어난 세수로 빈곤층의 복지나 사회 기반시설, 의료시설, 안전시설 등의 비지위재에 대한 투자를 확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민 1, 2세대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쟁취하려 노력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한 것은 과연 개인의 피나는 노

력으로만 가능한 것일까요? 경쟁의 종말에서 로버트 교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는 이미 형성된 사회 기반 시설과 세금으로 지불된 국가 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재능이나 노력과 더불어 운도 또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세계 최고의 부를 일구었던 빌 게이츠의 경우 스스로 자신은 운이 역세게 좋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위 1%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노력만으로 또 경쟁력만으로 그만한 부를 일구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가 주장하는 고율의 누진세에 대한 합법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자유주의 시장시스템과 규제가 적절히 조화되어 사회에 이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부의 창출이 가능한 나라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겪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극도의 시장경제와 자유경제를 추구해 왔던 미국도 최근의 정치지형을 살펴보면 버니 샌더스와 같은 극히 사회주의적 복지정책을 주창하는 사람들도 등장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지형의 변화는 실제로 기술적 변화와 더불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정치 지형의 변화로 인해 미국 전체를 유럽의 복지국가들처럼 급속히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적 진보들을 살펴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수많은 직업들이 기계로 대체되고 그로 인해 인류는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단순 노동직이나 단순 사무

직, 가사노동, 더불어 공장 노동자들도 기계로 대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과 로봇, 그리고 자동화라는 기술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발전해 오다가 현대의 융합기술로 접목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내고 있고 융합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류는 조만간 새로운 기술문명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던 시대에서 기술문명에 의존적이면서 고도화된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며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선진국들의 금융자본주의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며 금융과 기술에서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선진국들은 미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들과의 차이를 더욱 확연히 늘려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노동집약적 산업위주의 구조 속에서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조차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의 노력만으로 부유하게 되기는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럼 모두가 금융자본주의자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선택의 자유는 주어지지만 본류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그만큼 삶의 질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월가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금융자본주의는 그도가 지나쳐 위험한 파생상품과 위험 자산 거래 등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월가의 어느 금융회사의 대표가 받는 연봉이 일반 회사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많게는 500배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험한 거래 작태는 2007년 과거에 그 유래가 없던 금융위기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고통 받은 것은 고연봉 대표들이 아니라 사회의 일반 근로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는 나쁜 것이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까요? 그 대답은 사실 '아니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가 사회의 담합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사실 디플레이션보다 훨씬 나은 경제 상황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쪽은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일반 국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본이 없는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가치 저하로 인해 자신이 보유한 금전의 가치가 매년 떨어지고 또 매년 받는 연봉의 가치 또한 서서히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연봉만으로는 매년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서서히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동차의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 변화를 잠시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가격은 중형세단의 경우 20년 전 몇 백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고 집값 또한 마찬가지로 평균 약 5%에서 많게는 20%씩 매년 오르다 보니 같은 금액으로 10년 전에 살 수 있었던 집과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집의 크기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미국 기준 일반 직장인들의 소득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고 또한 땀흘려 벌어들인 소득을 은행예금으로 저축하여 벌어들인 수익이 자산의 인플레이션에 필적할 만큼 증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융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대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지위재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비지위재에 대한 소비를 늘리는 현명함으로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위재 구매를 억제하여 모은 현금으로 노년을 대비해 주식, 채권 투자를 일정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고 여기에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투자, 즉 부동산 투자를 통한 금융자산을 확장해 간다면 좀 더 나은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에게 투자를 권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많은 공부를 통해 확실한 자신만의 투자 관점이 생긴 후에야 투자로 인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수명 연장으로 고령에 이를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년 빈곤 문제는 누구나 한번쯤 심각하게 그 폐해를 생각해 보고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투자를 통해 금융자산을 늘려 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국가 정책과 금융자산가들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정치 지형의 변화를 무시하지 말고 가끔씩은 그 변화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금융자본주의로 그 경제기조를 조율하고 또한 개발도상국들조차 그 길로 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세계사적 흐름을 두고 볼 때 피할 수 없는 변화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폐해 또한 엄청난 것을 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치 참여를 통해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는 것과 우리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정치 참여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

중한 주권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맘 흘려 벌어들인 재산을 인플레이션의 함정에서 지키기 위해서는 투표를 통해 후보자가 통치적 관점에서 지위재에 비중을 두는지 아니면 비지위재에 비중을 두는지를 살펴 자신의 권리를 꼭 행사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후보자의 공약만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삶의 궤적 또한 살펴보는 정성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기 쉽지만 행동은 하기 어렵듯이 허위 공약만 남발하는 인물인지 아닌지를 또한 자세히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껏 내가 행사하는 한 표로 세상이 바뀔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투표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통치자의 실정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나 오랫동안 몸담았던 일터로부터 실적을 당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등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내가, 또 나아가 내 가족이 받아야 할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끔은 정치지형과 그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빈곤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설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부는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를 내치는 사건은 성경에서도 무수히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그랬고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지냈으며 부자 청년도 가진 부로 인해 구원의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자유시장경제보다는 복지사회가 교회의 원형에 부합하는 모습이겠죠. 서로를 돌아보아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복지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더불어 사는 삶

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경제 사회의 원형입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에서 보듯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없다면 받는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의 경제도 유지될 수 없겠죠. 또한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는 하나님이 하늘 곳간의 창고 문을 열어 주셔야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럼 하늘의 곳간 문은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제는 십일조의 경제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십일조는 교회에서조차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에 대한 설교를 아끼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를 드려 내가 하늘 창고 문을 활짝 여는지 열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소유 일부를 드릴 때 사르밧의 한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선물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드린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내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줄 알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십일조에 이르러 필자가 가지고 있던 가정 큰 의

문중의 하나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내 소유와 벌어들이는 금액을 아시고 십일조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아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믿는 사람들의 수입을 찾아서 십분의 일을 계산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어찌면 어리석은 의문이었다고도 생각되지만 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숫자를 정리하고 계산하는 일을 하다 보니 또한 당연히 드는 의문이었는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하고 지내 오다가 최근에야 주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십일조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내 수입을 보고 아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보고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의문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애처로워 답을 주신 것 이리라 생각되지만 그분의 답은 정말 명쾌하였습니다. 내가 십일조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마음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을 모르실 이 없는 그분은 간단히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십일조에 어려움을 겪는 필자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요약하면 금융자본주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가진 자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두가 한번쯤 진진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내가 열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늘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독자 컬럼

“성경 읽기”

곽명철 집사

성경읽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 요5:39)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이고,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뜻을 알고 (마 22:29), 그 뜻에 나의 삶이 재조정되어 (성화),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가 이 땅위에 이루어지는데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신자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어서 내 자신이 구원 받는 것, 복 받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가 되시어 죽음에까지 이르셨고 (빌2:6-11),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고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을 믿는 신앙, 즉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비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 세상에서 생명이 허락하는 동안 자신의 위치에서 작은 예수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 선한 하나님의 사역의 참여를 돕는 것이 성경읽기입니다 (딤후 3: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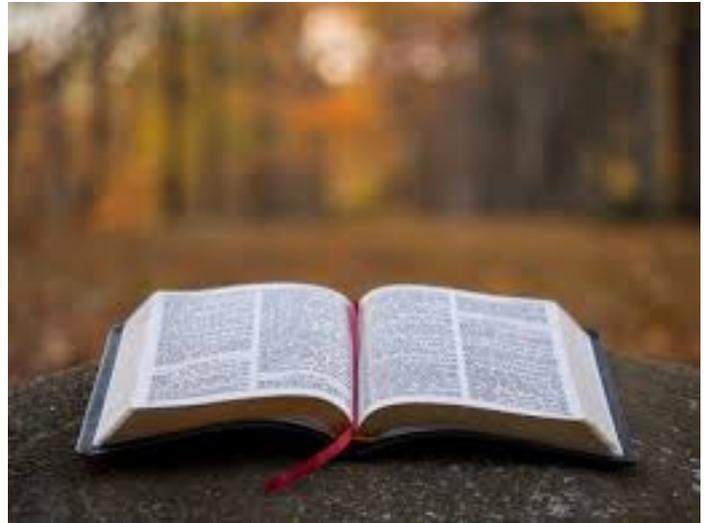
새해가 되면 흔히 성경읽기를 도전하는 많은 사람을 보는데 오래 지속하지 못하며, 특히 졸음에 굴복하여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흔히 성경읽

기를 음식섭취에 비교하며, 우리가 모든 성분을 알면서 먹지 않지만 그 음식이 몸에 도움이 되듯이, 말씀 충전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나름 설득력이 있으나, 독자들에게 거리가 있는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인 배경, 거기다 영적인 내용들은 독자들의 이해를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각 성경의 쓰여질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과 대상자들을 이해 하면, 성경 읽기가 다소 쉬워지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성경읽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초작업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간적인 좌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실을 그려보거나, 지도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대한성서공회의 웹사이트 <http://www.bskorea.or.kr/> 와 아래 두 권의 참고서적 1,2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약6000년의 역사를 1500여년 동안 사건들을 기록 한 것입니다. 구약은 39권으로 예수님 탄생 전을, 신약은 그 이후를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은 17권의 역사서, 5권의 시가서, 17권의 예언서로 구성되어있는데, 구약의 핵심은 17권의 역사서로서, 그 뼈대를 이루는 11권과, 보조서 6권으로 구성되어있

습니다. 그 11권을 중심으로 구약을 10시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5권의 시가서는 분열왕국 시대 이전과 연관 되어있고, 또 대부분의 예언서 (17권중 11권)는 분열왕국 시대때 부터를 집중적으로 기술합니다. 신약성경은 5권의 역사서 (사도행전과 4복음서)와 13권의 바울 서신 및 9권의 일반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이 대변하듯이, 우선 전도하기에 바빴던 바울은, 자신이 이미 개척한 교회들에 그들이 갖고 있던 문제에 (고린도는 은사문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구원론등) 대해서 서신을 통해서 양육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이 복음서들 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린 각기 다른 예수님의 '초상화'에 해당하는데, 요한 복음은 복음서의 '핵심'으로서, 공관 복음서들과는 달리 외향적인 모습과 사역보다는,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신약과 구약 모두 역사서를 중심으로 맥을 잡아가면, 성경의 뼈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읽기를 시작하시기전에 두번째로 강조해야 할 것은 성경 읽는 자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왜냐면 성경이 자칫 연구의 대상으로만 전락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음과 분주함 등 외부적인 방해요소를 제어하고, 내부적으로는 성경을 반박하려는 불손한 의도나 남보다 많이 알아 영적으로 우월해지고자 하는 의도를 제어하고, 영혼의 창, 즉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눅24:45) 사모하는 자세로 마음으로 받아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겔3:10), 깨달음과 의미



있는 성경읽기가 됩니다. 아울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벴후 1:20-21), 성령의 글은 성령이 알거니와, 성령만이 성경의 원래 저자인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2:10)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5:39), 영적인 세계를 다룹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요6:63).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 할 수 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50,000 번 이상이나 받은 것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뮐러 (George Muller)의 성경 읽는 법 여기에 간단

히 소개합니다.

(1) 규칙적으로 통독할 것; 통독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두서 없이 아무데나 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읽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눅 4:16). 성경은 각 책이 같은 사건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성경적 종말론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종말론 뿐 아니라 마태복음 24, 25장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종말의 비유들을 함께 이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기도하며 읽을 것;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119:18).

(3) 묵상하며 읽을 것; 탐구정신을 갖고, 유심히, 꼼꼼히 내가 오늘 섭취한 말씀의 의미와 오늘 나의 상황과 현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내적으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겔 3:10). 그러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10:10). 성경은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4) 믿음으로 읽을 것;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지식과 경험에 가두지 않고,

말씀읽을때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믿음으로 반응한다. 말씀을 믿을 때만 역사가 일어 납니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전 2:13).

(5) 실천할 (활용할) 목적으로 읽을 것;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계1:3). 곧 실천은 말씀읽기의 완결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2:13). 말씀을 암송하면 생활에 적용하기에 좋습니다. 아울러 암송하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시험과 유혹과 죄를 이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본받게 되며, 전도와 설교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 방해요소들을 뛰어넘고 말씀 읽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적인 한가지 방법은, 말씀을 소설책이나 일반서적처럼 눈으로 읽지 않고, 큰 소리를 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 상당 부분이 문어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려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들려주신 구어체라는 것입니다. 구어체는 들려져야 합니다 (실례로, 잘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요한 계시록도 청중들에게 낭독을 통해서 들려지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소리내서 읽을 때, 그것은 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도 들려지게 되고 선포 됩니다. 읽는 사람은 단수이나, 듣고 행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계1:3), 즉 내가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을 때, 먼저 나 자신이,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

람이 유익을 얻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는 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과 읽기에 대한 기본을 다룬 비교적 최근의 책으로 참고서적 4를, 또한 우리 실생활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 순종하며 살아나갈 지에 대한 성경해석과 적용을 위해서 참고서적 5,6을 추천 드리면서 글을 마무리 합니다.

Reading the Bible devotionally is not so much a technique, as it is a spirit or attitude.

You must read with a spirit of eagerness to know the mind of God and what he is saying to you.

- Elmer L. Tow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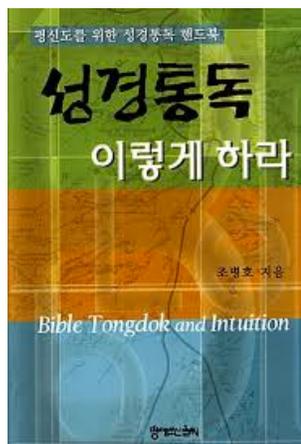
성경을 경건히 읽는다는 것은 영혼과 태도에 관한 것이지 기술이 아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무엇을 당신에게 말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 엘머 타운즈

참고서적;

1. 성경의 맥을 잡아라, 문봉주, 두란노, 2007
2.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 조병호, 땅에쓰신글씨, 2006
3. 대한성서공회의 웹사이트 <http://www.bskorea.or.kr/>
4.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 톰 라이트, 새물결 플러스, 2011
5.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 김근주, 성서 유니온 선교회, 2017
6. 묵상과 해석, 정성국, 2018



책별 성경읽기표 가이드

매년 초면 성경읽기를 큰 마음의 결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글을 마련했습니다. 일년에 구약1번, 신약과 시편을 2번 읽는 맥체인 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어가는 네비게이토 읽기표, 구약, 신약, 시편 동시 읽기표, 구약-신약 성경목차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책별 성경읽기표 추천해 드립니다.

1. 짧은 기도로 시작한다. 마음이 옥토가 되게, 내용을 깨닫게, 깨달은 것들 실천하면서 살수 있도록 결단하게
2. 원래 의도는 주일에 보통 5장, 주중에 보통3장을 읽게 하는 스케줄이고, 몇 해가 바뀌어도 계속 그 표를 사용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표에 지정된 매일 정해진 분량만 읽는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우선 해당일분부터 읽고서, 빠진 부분만 하루하루 보충해 간다. 가급적이면, 지정된 장소와 시간을 활용한다.
3. 한글로 읽는 경우에는 예배때나 공식적인 모임에서 사용되는 개역개정성경보다는, 표준새번역등 다소 쉬운 버전을, 영어의 경우는 킹제임스보다는 NIV를 권고 하고 싶습니다. 시간활용면에서는 휴대가 간편한 성경을 구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4. 하루에 15분씩 두번의 시간 (아침과 저녁)을 활용한다. 아침에는 각주나 해설 혹은 도표가 없는 성경을 사용하여,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을 삼고, 저녁에는 말씀을 해설과 더불어 연구 할 필요가 있지만, 하루에 한번 단순히 읽고 이해한 것을 따라 기도해도 된다.
5. 깨달은 내용과 결단을 간단히 기록하고, 기도로 마친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딤후 3:15-17)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계1:3)

일년 통독

성경 읽기표

역동적이고 열매맺는 삶의 비결은 바로 성경을 매일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 되었습니다.



일년 성경통독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 ▶ 날짜별로 해당부분을 다 읽고 체크한다.
- ▶ 읽기 계획에 뒤처지지 않는다. 만약 뒤처진 경우
해당 일어를 읽고난 후 빠진 부분을 보충한다.

1실			2실			3실			4실		
일자	일일 성경	확인	일자	일일 성경	확인	일자	일일 성경	확인	일자	일일 성경	확인
1	창세기 1-5		1	레위기 14-16		1	수 9-11		1	창상 6-8	
2	6-8		2	17-19		2	12-14		2	9-13	
3	9-11		3	20-22		3	15-17		3	14-16	
4	12-14		4	23-25		4	18-20		4	17-19	
5	15-17		5	28-전수 3		5	21-삿 1		5	20-22	
6	18-20		6	민수기 4-6		6	삿 2-4		6	창화 1-3	
7	21-23		7	7-9		7	5-7		7	4-6	
8	24-26		8	10-12		8	8-10		8	7-9	
9	29-31		9	13-15		9	11-13		9	10-14	
10	32-34		10	16-18		10	14-16		10	15-17	
11	35-37		11	19-21		11	17-19		11	18-20	
12	38-40		12	22-26		12	20-룻 3		12	21-23	
13	41-43		13	27-29		13	룻3-삼상2		13	24-대상 1	
14	44-46		14	30-32		14	삼왕 3-5		14	대상 2-4	
15	47-솔에 1		15	33-35		15	6-8		15	5-7	
16	솔에 2-4		16	38-산명 2		16	9-11		16	8-12	
17	5-7		17	산명기 3-5		17	12-14		17	13-15	
18	8-10		18	8-8		18	15-17		18	16-18	
19	11-13		19	9-13		19	18-22		19	19-21	
20	14-16		20	14-16		20	23-25		20	22-24	
21	17-19		21	17-19		21	26-28		21	25-27	
22	20-24		22	20-22		22	29-31		22	28-대하 1	
23	25-27		23	23-25		23	삼하 1-3		23	대하 2-6	
24	28-30		24	26-28		24	4-6		24	7-9	
25	31-33		25	29-31		25	7-9		25	10-12	
26	34-36		26	32-수 2		26	10-14		26	13-15	
27	37-39		27	수 3-5		27	15-17		27	16-18	
28	40-레위 2		28	6-8		28	18-20		28	19-21	
29	레위기 3-7					29	21-23		29	22-24	
30	8-10					30	24-창상 2		30	25-29	
31	11-13					31	창상 3-5				

5월			6월			7월			8월		
일자	일일 실적	확인	일자	일일 실적	확인	일자	일일 실적	확인	일자	일일 실적	확인
1	대화 30-32		1	시 20-22		1	시 118-120		1	시 20-22	
2	33-35		2	23-25		2	121-125		2	23-25	
3	38-스 2		3	26-28		3	126-128		3	26-28	
4	스 3-5		4	29-33		4	129-131		4	29-31	
5	6-8		5	34-36		5	132-134		5	32-34	
6	9-노 1		6	37-39		6	135-137		6	35-39	
7	노 2-6		7	40-42		7	138-140		7	40-42	
8	7-9		8	43-45		8	141-143		8	43-45	
9	10-12		9	46-48		9	144-148		9	46-48	
10	13-에 2		10	49-51		10	149-참 1		10	49-51	
11	에 3-5		11	52-56		11	참 2-4		11	52-54	
12	6-8		12	57-59		12	5-7		12	55-57	
13	9-용 1		13	60-62		13	8-10		13	58-62	
14	용 2-6		14	63-65		14	11-13		14	63-65	
15	7-9		15	66-68		15	14-16		15	66-참 2	
16	10-12		16	69-71		16	17-21		16	참 3-5	
17	13-15		17	72-74		17	22-24		17	6-8	
18	16-18		18	75-79		18	25-27		18	9-11	
19	19-21		19	80-82		19	28-30		19	12-14	
20	22-24		20	83-85		20	31-참 2		20	15-19	
21	25-29		21	86-88		21	참 3-5		21	20-22	
22	30-32		22	89-91		22	6-8		22	23-25	
23	33-35		23	92-94		23	9-아 1		23	26-28	
24	36-38		24	95-97		24	아 2-4		24	29-31	
25	39-41		25	98-102		25	5-7		25	32-34	
26	42-시 2		26	103-105		26	8-시 2		26	35-37	
27	시 3-5		27	106-108		27	시 3-5		27	38-42	
28	6-10		28	109-111		28	6-8		28	43-45	
29	11-13		29	112-114		29	9-11		29	46-48	
30	14-16		30	115-117		30	12-16		30	49-51	
31	17-19					31	17-19		31	52-해 2	



교회 소식

2020년 한 해를 보내며

(안수집사회)

매주일 집사

하 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스틴한인장로교회와 성도님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펜더믹 상황으로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안수집사회는 매주일집사 외 총 30명이며 (25 시무, 5 휴무, 5 협동) 한현주집사, 동지현집사, 손인숙집사, 그리고 이순희집사를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안수집사회 임원 제안을 드렸을 때 거절 없이 단번에 승낙 해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신임안수집사님들 환영해요. (1월) 김상철, 김성우, 김송자, 이찬재, Bruce Kim

신임안수집사 5명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헌신하실 신임안수집사님의 용기와 협력을 응원합니다. 안수집사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어 교회에서 귀하게 또는 적절하게 사용될 그릇 되길 소망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으로 헌금송을 하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두가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다짐하였습니다.

집사는 처음이라...(2월)

교회 안에서 사명을 맡는 것은 은혜고 감사함이지만 동시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누구도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집사가 뭐지? 집사들은 뭘 해야 하나? 여러 생각을 하며 서리집사로 임명된 신임서리집사를 위해 '집사의 날'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역자,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에서는 38명의 신임서리집사를 환영하며 격려하였습니다.

서리집사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백인엽/정유리집사님의 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였고 이인권장로님의 기도와 이승태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녁 만찬으로 최병진장로님표 BBQ를 비롯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손성태/김혜은집사님이 준비한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은 즐거움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집사가 처음이라 어리둥절한 새내기 집사님들을 위해 목회자 및 사역 위원회 소개를 하여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집사의 날'이 앞으로 교회 일꾼이 발굴되며 동역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길라잡이 되기 희망합니다.

예상치 못한 큰 변화

코로나 변수는 우리 예배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온라인 예배로 전화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곧 다시 되돌아 갈 거라는 기대를 비웃듯 지금까지도 예배와 교회의 사역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사명자의 책임감은 교회를 더 교회답게,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예배당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더 활기차게 자신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안수집사회가 무슨 일을 했나 궁금해 하실 성도님을 위해 몇 가지를 나열하겠습니다.

- | 매주 토요일 화장실 청소.
- | 온라인 예배 준비.
- | 공동의회 시 드라이브인 안내 담당.
- | 추석맞이 어르신들 선물 전달.
- | 특별 구제 헌금 마련하여 어려운 가정 지원.
- | 교회 내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활동적 제약으로 인해 미약한 부분도 있었으나 안수집사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수집사회는 하나님과 교회 및 성도님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안수집사회 회장으로서 안수집사님들의 기도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EM 대학생 섬김 사역

한현주 집사

시 작은 대학부에 있는 김민준 학생이었다
 대학부 목자인 민준이는 quarantine 동안 집에 있으면서 학교 캠퍼스 아파트에서 자취하는 자기 목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곤 했다. 그리고 어느날 배한원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이 얘기를 하며 힘든 시기에 집 떠나있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고, 나도 아이 둘이 있지만 올해 처음 대학생이 된 큰애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기에 다른 애들 사정을 알리가 없었다. 막막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일단 남편에게(한현택 장로) 자취생들을 파악해달라고 하니 60명 정도가 나왔다. 대학부 목자들은 quarantine 중에도 매주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

2:4)

힘들 때 그들도 기도하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작은 격려가 더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그 문제를 두고 기도시간을 가졌다. 일주일후 배한원 집사님과 통화를 했고 진행시키기로 했다. 나와 배한원집사님, 그리고 EM에 학생이 있는 이정민 전도사님 이렇게 셋이 마음을 모았고 음식은 격주로 추수감사절 한 주 전까지 하기로 하고 총 5회 메인음식 하나 반찬 한 종류를 만들기로 정했다. Quarantine이라 함부로 모일수 없는 상황에도 요리사는 필요했기에 이숙영 권사님과 김송자 집사님께 도움을 부탁을 했는데 김송자 집사님은 한국방문으로 끝까지는 못한다고 하셔서 처음 2주는 김송자 집사님이 그리고 나머지 3주는 이숙영 권사님이 요리사로 수고해 주셨다. 소식을 접한 이순희 집사님도 자원해 주시면서 6명의 팀이 기적처럼 만들어 졌다! 모임은, 주중에 한 번 모여 재료 준비해놓고 토요일에 모여 음식을 만들어 용기에 담았다. 주문은 매주 대학부 목자들과 온라인 모임을 갖는 남편에게 그주의 메뉴를 알려주면 목자를 통하여 주문을 받고 그주 토요일에 목자들이 와서 목원들의 음식을 가져가서 배달해 주었다. 학생들 거의가 주문을 해서 매번 60인분을 준비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처음에 막막했던 시작은 모두의 협력으로 9월18일 시작으로 11월13일 까지 무사히 마쳤다. 교회에 갈 때마다 텅 빈 예배당으로 가서 기도를 드렸다. 우리 학생들이 음식에만 감사하지 않고 그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도 알게 해달

라고, 그리고 봉사자들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계속 기도했다.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음식을 들고 가는 학생들의 뒷모습을 볼때 모든 피곤함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도 했다. 대학부 목자들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음식을 가지러 왔고 목원들도 매우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하니 더 힘이 났다. 어떤 학생은 감사의 표시로 컵케익도 구워왔다. 가져간 음식을 요리해 인증샷을 올리아 이도 있었다. 다 끝나고 남편에게 부탁하여 어떤 음식을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고 결과를 받았는데 1등이 닭도리탕이었다. 다들 집밥이 그리웠나보다. 그리고 아이들이 감사의 뜻으로 보내 준 메모들은 우리 모두를 뭉클하게 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전 16:14)”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여섯 말고도 순간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의 손길을 준비해 주셨다. 음식비를 보조해주신 유스 PTA와 친교부에 감사드린다.

두 번째 주중모임 때 나와 배한원 집사님 이정민 전도사님 이렇게 셋이서 닭도리탕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닭 허벅지살 기름 떼는 게 그렇게 중노동인줄은 예전에 정말 몰랐다. 닭 허벅지살 기름 떼느라 모두가 너무 지쳐 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나셔서 감자, 당근, 양파, 그리고 닭을 순식간에 썰어주시고는 가버리신 황영순 권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날 너무 기진맥진해서 도대체 집까지 운전하고 갈 힘마저 없어서 인앤아웃 가서 햄버거라도 먹고 가자고 하고 있을때 문소현 권

사님이 부엌으로 부추전을 갖고 오셨다. 그날 그걸 먹고 기운 차리고 집에 왔다. 문권사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바쁜 시기일 텐데 부엌까지 와서 돈까스만 드는 것도 도와주고 엄마들을 위해서 스타벅스 라떼로 쏘아준 김민준 학생에게도 감사하다. 새교우로 우리교회 나오기로 하시고 부엌부터 오셔서 일을 도와주신 박정원 집사님께 감사드린다. 음식을 용기에 담는 것을 도와주신 이정렬 사모님께 감사드린다. 봉투 여는 것도 일인데 그 봉투를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학생들에게 전해줄때 함께 도와주신 오세권 집사님께 감사드린다.

고 떠들고 사랑을 주고 또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귀한 시간들이었다. 이 모든 일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 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분주한 부엌에서 여러가지로 도와주신 이연숙 집사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 메뉴가 치킨테리야 끼였는데 그것을 구울 수 있도록 불판을 새것으로 만들어 주신 김기홍 집사님께 감사드린다. 치킨테리야 끼소스를 몇 시간에 걸쳐 직접 만들어 주신 이숙영 권사님께 감사드린다. 매번 모임이 끝나면 귀한 음식으로 우리가 집에 갈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해주신 이숙영 권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그리고 음식 픽업하러 오는 학생들을 함박웃음으로 맞아 주신 우리 이승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

10주 동안 함께 해주신 김송자 집사님, 이순희 집사님, 배한원 집사님, 이정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의 큰언니 이숙영 권사님! 여러분들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마스크를 쓰고도 많이 웃



감사의 글

이종순 권사



올해 봄 팬데믹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지니스도 얼마동안 문을 닫고 제 남편이 잠깐 동안 마음이 힘들었나봅니다. 남편(조현철 집사)이 아침에 기운 없이 계속 잠만 잤습니다. 걱정이 돼서 최영미 집사님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남편을 보시고 심장 쪽이 의심이오니 병원에 가보라고 하셔서 Heart hospital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서 남편의 심장 양쪽이 거의 다 막혔다는 것을 알게 됐고 폐에도 물이차서 호흡이 갑자기 곤란하고 고비를 맞는 듯 힘들어하였습니다. 목장과 목사님께 그리고 기도팀과 집사님들께 기도부탁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셔서 고비를 넘기고 한 달반 동안 심장의 휴식을 가지게 한 뒤 심장수술을 잘 받고 주님은혜로 회복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두 달 쯤 지났을 때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고서 St. David's 에 입원을 했는데 스트로크가 진행되면서 몸 왼쪽이 마비가 왔습니다. 매일 몸에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있는걸 보니 더 낙심이 되었고 간호하는 저희들이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목장

에 기도제목으로 올리고 저희 가족이 궁금해서 문의해 오시는 집사님 권사님들께 기도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로 정성으로 기도해주셨습니다. 음식을 보내주시고 물질로도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꾸 아픈 남편을 위해 따뜻하게 심방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두 번의 엄청난 병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애타게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일일이 다 감사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님이 각 가정에 큰 평강으로 갓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돌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얼른 일어나서 함께 돕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남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낫게 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자 작품

어스틴 한인 장로
교회 성도님들의
작품 | 시

미소

엄두간

차 양아래 가려진 흙색의 땅에
췌기풀처럼 솟아오른 태양의 깃발들
슬픈 눈물로 어두운 그림자만 밟으며
통한으로 이은 소망의 실타래들

아침 이슬에 핀 백합화 저물기 전에
구타로 터진 입술 아물기 전에
핏빛 꽃잎으로 땅에 떨어져
혼불처럼 타오른 천년의 염원들

차라리 아무일도 없었던듯
애초에 그런 일은 없었던듯
통각으로 저린 얼굴 역사에 묻어버린
태양도 부끄러운 하늘아래 그 미소

혹여 우리 가슴에 못 박을까봐
혹여 시린 마음에 눈물지을까봐
온 몸 짓누른 바위같은 고통과
빠져버린 손톱의 쓰라린 아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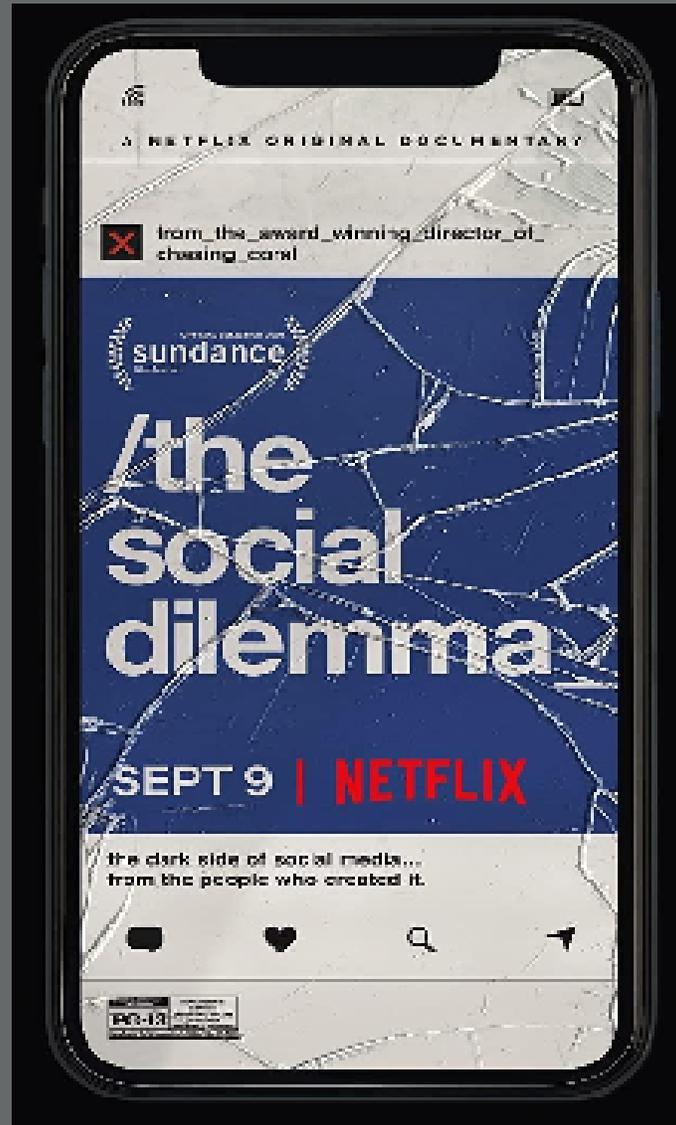
선물받은 손가방인양 양손에 붙들고
세상의 빛으로 온 것도 알지 못한 채
구름되어 사람들의 가슴으로 떠나버린
빛바랜 사진속 하늘색 미소

디지털로 복원된 유관순 열사의 미소를 대하고,

문화 산책

The Social Dilemma (소셜 딜레마)

김상보 장로



현 재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영화산업이 침체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와 영화사 그리고 상영관등의 전형적인 영화산업의 고리를 무참하게 깨어버린 이 상황이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된 회사들 즉,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회사들이 직접 제작하여 개봉관이 필요 없이 당사의 채널에 바로 발표하는 새로운 영화형식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줄루, HBO,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등이 여기 속합니다. 제작투자도 자사 위주로 운영하여 감독 등에게 창작의 자유를 더 허용하고 배분 및 상영관에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영화 시간인 2시간에서 벗어나 시리

즈물이나 장편제작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극장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히 영화 감상을 할 수 있고 시간제약도 줄어들어 최근 많은 작품들이 극장이 아닌 집이나 컴퓨터, 전화기 등으로 소비되고 있으므로 장편물이나 연결되는 시리즈물이 꽤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예로 “킹덤”이라는 한국 사극 좀비물, “Alienist” 19세기 미국을 배경으로 한 탐정물, “Raised by the Wolves” 미래를 배경으로 신앙과 인간 그리고 그 기원에 대한 고찰을 위주로 한 공상과학물 등이 최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아래 극장개봉은 없었지만 넷플릭스에 의해 제작, Sundance Film Festival에 초청 상영되었으며 2020년 9월에 넷플릭스에 의해 방영된 최신 다큐멘터리 필름 “Social Dilemma”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의 실제 현상에 드라마틱한 요소를 가미한 소위 “다큐드라마”로 현재 우리 주위 특히 청소년 연령의 우리 자녀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소셜미디어 즉, Google, Facebook, Twitter, Instagram, Youtube 그리고 TikTok등의 파괴적인 모습을 조명하고 감시자본주의 또는 정보채굴방식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사용 중인 User(사용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본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업이나 자국 시민을 감시하는 체제도구로 활용하는 국가들을 고발하며 소셜미디어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중독 증세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십대들의 자살률 급상승)등을 집중 분석하고 또한 이를 이용한 정치세력의 음모론 확장에 이용되어 현 미국 대선에서 조작 악용되고 있음을 중간 중간 드라마 형식을 빌려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드라마적 요소를

제외한 부분은 주로 위에 말씀드린 주요 테크 회사나 소셜 미디어 회사들의 전직 직원, 경영진 그리고 학술적인 연구자들의 인터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드라마적 장면은 3명의 십대 자녀를 둔 한 가정을 배경으로 중학생 자녀의 소셜 미디어 중독현상과 아이의 심신에 미친 영향, 그리고 컴퓨터의 잘못된 알고리즘으로 형성된 인공지능의 오류 등이 혈기왕성한 고등학생의 미래에 미칠 수 있는 뜻밖의 영향 등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위에 소개된 많은 소셜미디어 회사 전직 임원과 경영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초창기 개발 당시 소셜미디어가 추구했던 모습은 현재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적 상품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지식이나 사연, 대기 중인 장기 기증자 찾기 등의 자본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업이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니만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익을 창출할 필요는 있었기에 광고수익을 이익창출로 지목하면 서부터 소셜미디어의 흑역사는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구글 사이트에서 새로운 지갑이 필요해서 지갑이라고 검색 창에 검색하는 순간 구글 본사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누구가 몇 시경 무엇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채굴하게 되며 전 세계의 지갑 정보를 순식간에 모은 다음 이미 파악된 검색자의 주거 공간 주위로 정밀하게 여과하고 뒤에서는 더 빠르게 현재 지갑 판매 사이트들을 정비하여 검색과 동시에 이 많은 정보들이 순식간에 여과되어 거주지의 지갑판매현황과 현재 저가세일 중인 회사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며 구매를 부추깁니다. 남녀 지갑이 혼합되어 나오면 남자 지갑으로 고쳐서 검색하게 되어 구글 본사는 현

재 지갑을 검색하는 사용자(User)가 남자 혹은 남자 상품을 고른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채굴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년 비슷한 시점에 웹사이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남자 지갑 광고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게 됩니다. 세팅에 가서 검색 히스토리를 지우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겠지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팅을 바꿈으로써 구글 측에서는 이 고객이 더 이상 남자지갑을 원치 않는다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 드렸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검색 또는 올린 사진으로 인해 검색 회사들에게는 이기적인 정보채굴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과 전 세계 수십만의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정보를 검색회사를 대신하여 채굴해주고 있는 셈이고 옆에 뜬 각종 세일즈 광고로 인해 이 사이트 저 사이트를 다니며 더더욱 많은 정보채굴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성별, 나이, 직업, 주거지, 활동성향, 활동 시간대 등)를 동시에 검색회사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됩니다. 이로 인해 좀 더 싼 것을 사고 싶은 사용자들의 중독현상 역시 본인도 모르게 발생하며 내가 사용하던 컴퓨터는 그로인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하게되고 인공지능에 의한 분석으로 감시 자본주의 (Surveillance Capitalism)에 이르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그리 큰 문제의식은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지갑”이라는 검색어를 정치적인 요소로 대신하는 경우 이미 우리가 검색하는 정보내용이 기계학습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검색하더라도 이곳 텍사스 구글에서의 해답과 캘리포니아 구글에서의 해답은 전혀 다르게 도출될 수도 있게 됩니다. 문제는 사용자입장에서 구글에서 제공

하는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인간학습(Human Learning)에 오류가 생기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돈된 매개체 뉴스나 신문 등에 익숙하신 어르신들과 아직은 이 알고리즘의 윤리의식에 밝지 않은 청소년들은 쉽게 잘못된 정보 즉, 지갑회사들의 물건을 팔기 위한 상술을 넘어서는 정치집단의 상상을 초월하는 음모론 선동, 사회의 클릭수가 이익창출이 목적인 회사들의 기계적 비교의식 조장, 아이들의 장난 수준인 외모편향주의를 사업의 기반으로 삼아 윤리를 모르는 기계적 경쟁의식 조장 등에 유혹될 수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십대 여학생들의 자살률은 역대 최고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손님, 즉 구매자를 USER (사용자)라고 칭하는 산업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Drug User(향정신성 약품 사용자) 와 Computer User (컴퓨터 사용자)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드라마적 요소에 등장하는 십대 여학생은 저녁식사 중에도 좀 전에 자기가 올린 셀피 사진의 반응이 궁금해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전화기를 보지 않기로 한 가족과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전화기를 향해 돌진합니다. 각종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자신의 사진을 최대한 다른 인터넷 유명인사 사진처럼 교정하여 올렸건만 이미 그런 사진에 익숙한 전 세계 친구들의 그저 그런 듯한 반응에 감수성 예민한 이 여중생은 절망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 정치상황이 궁금한 그녀의 고등학생 오빠는 현 정치상황에 대해 검색하다가 알고리즘에 여과된 지엽적 정보를 대하고는 온갖 음모론으로 포장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 끓는 젊음으로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나타나 경찰에 체포됩니다. 물론 소셜미디어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화기 하나로 손쉽게 내가 언제 어디 있던지 15분만에 택시를 내 앞에 불러올 수 있으며 현금이 없이도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하고 멀리 사는 보고 싶은 이의 최근 사진들을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고 바로 문자나 전화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윤리 의식이나 고객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광고를 하는 기업의 의지로 정보들을 이익창출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어쩌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실제 소셜미디어 초창기 제작자나 경영진들은 말합니다. 본인들의 아이들은 절대 소셜미디어를 쓰지 못하게 하며 아예 전화기 자체를 성인이 될 때까지 못 쓰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본인들이 발명했음에도 윤리문제를 아직 주시하지 않은 많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상대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중에 있다고 하며 그들이 알려주는 자녀들을 소셜미디어의 폐해에서 보호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 특정 정보의 알림기능을 끄시거나 알림기능을 줄이십시오,
- 소셜 미디어나 뉴스앱이 별로 나의 하루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거든 삭제하세요,
- 검색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검색창을 사용하세요 (예: <https://duckduckgo.com/>).
- 브라우저 확장판을 이용하여 추천 사이트를 차단하세요.
- 정보를 누군가와 공유하기 전에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 나와 반대 성향의 정보를 통해 비교해 본 후 정보를 취득하세요.
- 절대 어린이들에게 전화기를 주지 마세요.
- 절대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영상에 접속하지 마세요.
- 클릭미끼에 가능하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일정 시간대가 되면 침실에서 전화기를 추방하세요.
-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 외 몇 가지 과학적 근거도 제시함으로써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소셜 미디어가 출시된 2009년부터 만 15~19세의 여학생들의 자살율이 70% 증가하였고 만 10~14세의 어린 여학생들의 자살률은 무려 151% 증가했습니다.
- 2010~2011년에는 자해행위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미국에 사는 만 15~19세의 여학생들이 62%, 만 10~14세의 어린 여학생들이 189% 가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도 있습니다.
- 스냅챗이 출시된 2015년부터 성형외과를 위주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위 “Snapchat Dysmorphia” 스냅챗 변태성 혹은 스냅챗 이상형태증으로 스냅챗이 무료로 제공하는 외모여과장치 앱으로

나타난 자신의 모습으로 수술을 요구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MIT 연구에 의하면 가짜뉴스나 정보가 트위터에서 전달되는 속도는 사실과 정확한 정보보다 6배나 빠른 속도로 전달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가짜뉴스나 정보에 쉽고 빠르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은 가짜뉴스 혹은 가짜정보가 사용자의 주목을 더 받는 현상이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게 가짜뉴스 혹은 정보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컴퓨터 곳곳에서 반짝이는 클릭미끼를 등장시키게 되는 기이한 현상과 악순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필자도 다큐멘터리 필름을 허황된 얘기가 아닌 진실에 접근하는 통로로 꽤나 즐겨봅니다만 이번 작품은 시의성과 재미 그리고 메시지 전달의 울림이 큰 작품이라 생각하며 작금의 현실에 우리 주위에 만연해있는 소셜미디어의 폐해와 아이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시청해야할 다큐드라마라 생각하여 이번 호에서는 “Social Dilemma” 추천합니다.



간증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만나는 그 자리...

김광섭 집사, YOUTH 부장



질 풍노도의 시기라 말할 정도로 Youth 시기에는 수많은 변화를 급변하게 겪습니다. 때론 이 시기를 지내면서 많은 부모님들의 걱정이 늘어나며 자녀와의 갈등을 겪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성숙한 인격체로 아름답게 성장하지만 이 시기를 잘 못 지내면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시기는 청소년들이나 부모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부모의 한사람으로 또 유스 그룹을 섬기는 부장으로서 처음에는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이 직분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과 잘 지내며 그들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나이도 너무나 많은 차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니다. 1세대인 부모로서 언어의 장애로 인한 소통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이들을 깊이 살펴 혹시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지 않나 살피는 것이고 둘째는,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아이들을 섬기

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은혜의 목격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변화가 심해, 불안하기 짝이 없는 유스 아이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임하는 것을 보는 은혜였습니다. 유년부를 막 졸업하고 유스에 올라오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어리고 그들이 언니 형들과 어떻게 잘 어울리고 또 신앙적으로 잘 배우고 성장할까 하는 걱정으로 시작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를 참석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예배는 매번 저의 마음에 감동으로 물려옵니다. 처음에 어색함으로 예배를 잘 적응하지 못하던 아이들의 심령에 주님의 손길이 임해 그들이 손을 올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감동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며 주님을 외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이들이 자신만을 알고 지내다가 친구와 동생들을 챙기고 사랑하면서 조금씩 성숙해 감을 보게 됩니다. 언니 오빠들이 소외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챙기고 친구들과 마음을 오픈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해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숙한 아이들로 변해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유스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셔도 유스 아이들을 위해 다시 선생님이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

져 주시고 키워 가신다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탁 받은 자로써 그들을 잘 살피고 이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목격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분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간증문

좌충우돌 미국 정착기

김상범 전도사



하 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 곳 어스틴으로 인도하신지도 이제 15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연수로 말씀하시는데 아직 개월 수로 말하는 걸 보면, 난 정말 최근에 미국 온 사람이 맞는 가보다. 그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아무런 연고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온 우리 부부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교회에 진심으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가정은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나름 잘 정착해 가고 있다. 물론, 모든 다른 분들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경험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더욱 깊숙이 이곳에 정착해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은 좀 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 또한 잊지 않는다. 그만큼 낯선 나라에서 겪는 어려움은 더 당혹스럽고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오늘은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 가정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웠던 것들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우리 가정은 지난 2019년 8월 말에 이곳에 도착했다. 그 때는 이미 막내딸 유빈이의 학교가 개학해서 3일 정도 수업을 진행한 때였고, 나 또한 바로 3-4일 후면 신학교의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는 때였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기에는 너무 촉박하게 왔다. 한국에서 맡고 있었던 사역을 잘 마무리 짓고 오고 싶은 마음 등등 해서 너무 무리하게 일정을 잡았던 것이다.

여하튼, 이렇게 늦게 출발하는 비행기 표를 끊고 나니까, 내 머리 속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동안 출장으로 몇 번 미국을 와 봤던 터라,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장도 못 보고, 교회도 못 가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학기 시작에 임박해서 오니, 촉박한 시간에 여유 있게 차를 구입하러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더구나, 아직 잘 모르는 신학생들에게 중고차 보러 같이 가자고 라이드를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아보였다. 그래서 생각 한 것이, 학교에 외국학생 담당자분께 사정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주변에 적당한 중고차를 파는 분이 계신지 메일로 여쭙보기로 했다. 얼마 후에 그 분에게서 답변이 왔는데, 마침 섬기시는 교회 성도분 중 한 분이 중고차를 팔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차에 대한 정보를 대충 받아봤는데 그런대로 괜찮아 보였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도착하는 날 저녁에 차를 보기로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 왔다.

그리고, 미국 땅에 도착한 우리는 숙소에 대략 오후 3시쯤 도착했고, 뒤바뀐 시차와 복잡한 여행 때문에 모두 긴장했는지 우리 모두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골아 떨어졌다. 오후 5시쯤에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오는 소리에 나는 잠을 깬다. 아직 정신없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아보니, 차를 보여주기로 약속한 분의 전화였다. 그렇게 해서 그 차를 보게 되었다. 시운전도 해보고 차를 쪽 살펴본 내 소감은 '사지 말아야 할 차'였다. 그런데, 어찌하랴. 당장 내일부터 유빈이 학교 등록도 시켜줘야 하고, 장이라도 봐야 내일부터 뭘 해서 먹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압박해왔다. 더구나 나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 내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쉬는 기간도 없이 바로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차를 사지 않으면, 앞으로 한 두 달은 차를 사러 다닐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 동안 겪을 불편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전에 차를 사고 싶었다. 그래서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사면 안 되는 차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로 준비해 주셨을거야!" 라고 하는 근거 없는 희망으로 그냥 그 차를 사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온지 이틀 만에 차를 사고, 등록까지 마치고, 그 차로 유빈이도 학교에 등록하고, 필요한 장까지 보게 되었다. 뭐, 차가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샀으니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지 하며 스스로를 위안하였다.

문제는 3일차부터 생겼다. 언퍼니쉬드 아파트로 이사를 왔으니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이 꽤나 많았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몇 가지 물건을 중고로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그 집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8월 어스틴의 날씨는 말그

대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분이 사는 아파트는 한국과 달리, 동 바로 앞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한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 놓고 잔디 사이로 난 길을 걸어가서야 우리가 사기한 물건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아내랑 공공거리며 그 물건들을 아파트 아래까지 겨우 내렸을 때 이미 온 몸은 땀으로 완전히 젖어버렸다. 나는 우리가 주차한 쪽 보다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쪽으로 차를 옮기겠다고 아내에게 말하고 차를 가지러 내가 주차한 곳으로 갔다.

그랬는데... 아, 이게 웬일이람? 분명 내가 주차한 곳에 내 차는 없고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분명 내가 주차한 곳이 맞았다. 혹시나 그 자리에 세워진 차에 전화번호라도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 것도 없었다. 그때 느꼈던 당혹감은 정말 인생 살면서 느낀 당혹감 중에도 손꼽을 만큼 컸다. 나는 조금 긴장한 인상을 한 채 아내가 있는 쪽에 갔다. 그랬더니, 그 퇴약별에 아내는 무겁게 내린 짐들을 지키며 처량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서러운 마음이 획 내 마음을 스쳐갔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그것도 3일 만에 이런 일을 당하고... 아직 아무 것도 모르고 나만 믿고 있는 아내를 이렇게 처량하게 만들고 있나?' 하는 생각에 울컥했다.

나는 조용히 그 물건 주인께 도움을 좀 청했다. 그런데, 그 분은 보통 한국 분같이 정 많고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다. 냉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차피

기다려 봐도 도움받기는 힘들어 보여서 나는 그냥 밖으로 나왔다. 혹시 아파트 관리소에 사람이 있는지 찾아봤다. 100도가 넘는 한 낮에 아파트 관리소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겨우 찾아가 보니, 주말이라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문 앞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불법주차 시 견인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견인되면 어디로 전화하라는 번호가 쓰여 있었다. 그제야 나는 내 차가 견인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아, 세워놓은 시간이 30분도 안되었는데 그 사이에 견인이라니!' 게다가, 적혀진 전화번호로 몇 번 전화를 해 봐도 주말이라 자동응답기만 계속 돌고 있었다.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시간은 이미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나는 아내가 걱정되어 돌아왔다. 그리고는, 최대한 걱정스럽지 않은 얼굴표정과 목소리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알렸다. 아내는 그늘 하나 없는 퇴약별에서 얼굴이 벌겋게 익어서는 걱정스런 목소리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다.' 내 입에서는 정말로 '오 주님~' 하는 신음이 나왔다.

난 한번 만난 적도 없는 3학년 신학생에게 무작정 전화를 했다. 그 번호가 내가 아는 유일한 현지인 번호였다. 아니, 내가 아는 유일한 번호였다. 다행히 그 신학생은 전화를 받았고,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 시간 정도 흘렀을 때, 그 남편이 픽업트럭을 끌고 그곳에 왔다. 처음 보는 그분의 모습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줄 수호천사처럼 보였다. 나는 그 분과 함께 짐을 싣고, 아내와 함께 그 차에 탔다. 그리고, 그 분의 도움으로 경찰에 전화를 해서, 내 차 위치를 파악한 후, 그 분과 함께 그 곳으로 향했다. 거의 40분 이상 떨어진 어스틴 동부 외곽에

있는 음침한 곳이었다. 그리고는, 거기서 벌금 200 달러를 내고 나서야 겨우 내 차를 가져 나올 수 있었다. 견인을 해 오면서 차 외부에는 이곳저곳 없던 흠집까지 많이 생긴 상태였지만, 뭐 따지고 말고 할 마음이 아니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그 분과 함께 짐들을 다 집에 옮긴 후,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 버렸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아내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은 미국이 마냥 싫고 서러웠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에 온 지 3일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생겼던 일이었다. 그 땐, 우리나라보다 작은 표지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거기다가 주차장마다 어디는 방문 주차가 가능하고, 어디는 안되는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아직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분명 이 일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하는 어떠한 일이 있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은 조용히 내 머리 속에서 사라져갔다.

내가 그 견인 당한 경험에 대해서 ‘아하!’ 하며 무릎을 치게 된 것은 그 이후로 약 6개월도 넘어서였다. 그 날, 아내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나는 그때 일을 떠올리며 조금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내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 “차 등록할 때, 전 주인분이 매매 말고 선물로 처리하자며 취득세 200불 아껴줬는데, 그 돈 고스란히 그 다음날 벌금으로 내버렸잖아!” 그러고는, ‘아! 그랬구나.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내가 내지 않은 세금이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랬다. 내게 이 차를 판 분은 대만계 미국인이셨는데, 그 분은 차 등록할 때 내게 선물로 처리하면 취득세를 거의 안 낼 수 있다며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 때, 나는 분명 거절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절약한 세금이 200불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나는 그 돈을 벌금으로, 그것도 굉장히 고생하면서 낸 것이다. 뭐,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도한 것도 아니니까 내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새롭게 그 길을 시작한 내게 하나님은 세상의 관점에서든 흠 없는 모습을 기대한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라는 성경구절이 떠올랐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지만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워져서 궁핍할 때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궁핍함이 구질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천국 백성이다. 모든 면에서 천국백성 다워야 한다. 어려워도 삶이 내 정체성과 영적 자존심과 거룩함까지 무너뜨리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정말로 초라한 인생이 된다. 오히려 어려워수록 더 정직하고, 철저하고, 당당할 때, 우리 마음과 영혼은 더 강직해지고, 세상은 이런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얼마 아껴보겠다고 나라에 당연히 내야 하는 등록세를 속였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처신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아픈 경험을 통해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다. 그 이후 나는 이 나라의 법과 규칙에 대해 더 조심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웬만하면 답답하지만 규정 속도도 지킨다. 왜냐면, 그것이 내가 이 나라에서 처음 배운 레슨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이 차에 얽힌 나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나는 이 차를 탄지 1년도 안 되는 동안 엔진, 미션, 브레이크를 손을 봤다. 차가 가고, 서고, 변속하는 모든 것을 손을 본 것이다. 근데 아직도 수리해야 할 것이 산더미다. 아직 견딜 만 해서 손을 안 보고 있는 것이다. 작은 수리들은 뭐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웬만한 건 내가 DIY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이 차는 정비소에 맡겨져 있다. 보험을 들 때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차는 항상 로드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멈춰 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차를 되팔려고도 많이 생각했다. 그런데 업체에 넘기자니 서류비용 정도 밖에 못 받고, 그렇다고 개인에게 넘기자니 이런 상태의 차를 누군가에게 넘긴다는 것이 양심에 가책이 느껴져서 그냥 폐차할 때까지 내가 타기로 했다. 이 글을 읽는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성(reason)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 이성을 사용해야 할 땐, 이성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차를 고르는 일은 분명 이성을 사용할 때인 것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나는 이 차가 고마울 때도 많다. 일단, 미니밴이어서 시장 보거나 중고 가구 같은 것 옮길 때 여간 편한 게 아니다. 그리고, 아내와 내가 모두 학업과 사역을 하다 보니 따로 움직일 때가 많은데 그럴 땐 이 차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지 모른다.

이 차는 내가 평생 타 본 차 중에 가장 많은 소리를 낸다. 나는 차에서 이렇게 많은 잡소리가 나는지 처

음 알았다. 어떤 날은 윈도우가 잘 작동하고, 어떤 날은 안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배웅 나온 분들께 미안해도 윈도우를 잘 안 내린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 차를 할머니에 자주 비유한다. 할머니가 오늘은 허리가 아프시다가 내일은 무릎이 아프신 것처럼 이 차도 매일 매일 컨디션이 다르다. 잡소리를 내는 날에는, “에구, 할머니,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시네요. ~” 라고 한다. 그래도, 잘 달려주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날 잘 데려다 주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든다. 다음 주에는 이 차를 끌고 샌안토니오에 다녀와야 한다. 부디 이 할머니가 나를 안전하게 그 곳까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힘을 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미국에서 처음 산 차. 그리고, 내가 미국 온지 3일 만에 눈물 속 빼면서 크게 한 가지 배우게 해준 차. 이제는 미운 정도 많이 들어서 그냥 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차. 부디 내 곁에서 그 마지막 여정을 잘 마치렴~

AKPC 새 교역자 소개



담임 목사: 김준섭 목사 (만50세)

학력:

1993.0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졸업 (B.A.)
 2001.0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M.Div.)
 2011.04 남아공 Pretoria 대학교 신학부 석사 졸업 (조직신학) (Th.M.)
 2018.04 남아공 Pretoria 대학교 신학부 박사 졸업 (조직신학) (Ph.D.)

목회 경력:

2002.10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전 중앙노회 목사 안수
 2002.12-2004.11 평양노회 왕성교회 부목사 (담임 길자연 목사)
 2005.01-2007.12 대전 중앙노회 동신교회 동사목사 (담임 송양현 목사)
 2008.02-2010.12 남아공 아프리카 선교교회 협동목사 (담임 이상훈 목사)
 2011.01-2015.07 남아공 ABBA (Africa Bible Based Academy) 신학교 강사
 2015.09-현재 와싱턴 중앙 장로교회 부목사 (담임 류응렬 목사)



가족: 송현희 사모, 두 아들 (재혁, 재현)

최종 후보자 선정 사유

- 청빙위원회는 김준섭 목사가 목회 소명이 확실하고 목양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투철한 목회자임을 확신했고 늘 기도하는 목회자, 말씀 연구를 쉬지 않는 목회자, 설교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임을 확인했음.
- 김준섭 목사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닌 목회자의 기본을 잘 갖춘 목회자로 판단함.
-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섬기는 교회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그들로 부터 사랑과 신뢰, 존경을 받는 목회자로 판단함.
- 개척교회 목사의 따님이신 송현희 사모는 김준섭 목사의 목회 활동을 잘 보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것으로 판단함.
- 김준섭 목사는 선교에 대한 열정과 실제 선교 현장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셔서 우리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함.



청년부 사역자: 김상범 전도사

서울 출신
국제관계 역사 전공
장교 경력 23년
온누리교회 제자훈련 / YWAM DTS 간사 등
Austin Seminary 목회학과과정 재학중
AKPC 청년부 사역자



영유아부 사역자: 이희정 전도사

서울 출신
음악 전공 (호른)
교회학교 부장집사 / 여전도회장 등
온누리교회 제자훈련 / YWAM DTS 간사 등
Central Baptist Seminary 디플로마과정 재학중
AKPC 영유아부 사역자



청소년부 사역자: 서진 목사

Pastor Jin Seo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with the Bachelor degree of Science in Chemistry. Then he joined the graduate school for the Master of Divinity in General Ministries at Talbot School of Theology. Pastor Jin Seo started his career as a chemistry adjunct faculty at Biola University. With over 7 years of youth ministry experience, he is currently serving AKPC as a youth pastor.

2020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AKPC) 교육학교 조직도

(당회 교육 1부위원회: 지정인 장로)

1.주일학교

영유아부 (0~36 개월):

이희정 전도사

유치부 (만 3~5 세):

곽은희 전도사

유년부 (1~5 학년):

이정민 전도사

중고등부 (6~12 학년):

서진 전도사

(이성민 집사/김효진 집사)

2.토요한국 학교

영유아부는

- 0-3세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도우며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예수님의 말씀과 찬양을 배울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현재 25명 안밖의 영유아가 영유아반에 함께 합니다

시간표	10:00 - 10:30	자유롭게 모이는 시간
	10:30 - 11:00	예배 기도, 어린이 찬양과 율동, 교재를 바탕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
	11:00 - 11:20	간식
	11:20 - 11:40	Activity (생일 어린이가 있는 경우 생일 자녀 축하)
	11:40 - 12:00	어린이 찬양과 율동
	12:00 - 12:20	교재를 통한 공과놀이
	12:20 - 12:45	선생님들과 함께 마무리 (장난감 제자리에 놓기)
	12:45 -	귀가 시간

유치부는

-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성경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God's People), 세상의 빛(Light of the world)” 의 자녀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자라나게 하는, 그리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것을 배우게 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자라 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간표	10:00 - 11:10	한국학교
	11:15 - 12:10	경배와 찬양 (매월 첫주마다 새 찬양을 배우고 찬양해요) 기도송 말씀선포 말씀암송 헌금송및 기도 광고시간 및 환영송 주기도문송
	12:10 - 12:40	공과시간
	12:40 -	귀가 지도

유년부를 소개합니다.

1. 교육 목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벧후 3: 18)
2. 시간표
 - 예배 시간 11:15~12:10 (2층 소예배실)
 - 성경 공부 12:10~12:30 (2층 각 반 교실)
 - 성가대 10:00~11:00 (유년부 성가대실)
 - 찬양팀 10:00~11:00 (유년부실)
 - 기타반 10:00~11:00 (A/B 반)
3. 섬기는 이들
 - 부장 여영규 집사/김형자 집사
 - PTA 회장: 오선주 집사 / PTA 부회장: 이경아 집사, 백기숙 집사

AKPC



RADIATE YOUTH MINISTRY (청소년부)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 Gen 1:3

VISION
Build up young believers who are committed to Christ and the local church by doing *life* together (i.e., discipleship) to radiate the gospel of Jesus.

WORSHIP INFO

SNL

Time: 7-9 PM
(Time will change to 6-8 PM starting March)

*All youth services take place in the youth chapel

SUN

Service Time: 11:15 AM
Bible Study: 12:40 PM

MINISTRY INFO

 **Demographic**
Radiate Youth Ministry serves around 90 students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6th through 12th grade).

 **Teachers**
Currently there are 14 teachers that serves with the youth. Teachers are always needed for weekly Sunday Bible study! Interested in serving the youth? Contact Pastor Jin Seo.

 **Got Questions?**
Email: seojin24@gmail.com
Phone: (949) 517-8085

어스틴한인장로교회 **토요한국학교** 는 신앙 교육과 우리나라 말과 글을 교육하는 우리 교회내 학교입니다.

1. 학교 비전

-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
- 우리나라 말과 글을 사랑하고 할 줄 아는 어린이
- 우리 나라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어린이

2. 학교정보

- 학기 (기간); 봄학기(1월~5월), 가을학기 (8월~12월)
- 수업 시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 30분까지
- 수업 내용; 한글 성경, 우리 나라 말과 글, 역사및 문화

3. 2020 봄학기 소개

- 학급 수; 총 8반
- 학생 수; 총 46명
- 중.고등부 자원봉사자 수; 총 20명

4. 자녀 신앙 교육과 한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 김호진 (hellozini@gmail.com)



어스틴 한인장로교회
한국학교

간증문

교회 카페 그리우신가요?

신미진 집사



한 잔의 음료를 통하여 교제와 구제, 선교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 그림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대로가 아닌 이 어쩔 수 없는 힘든 상황가운데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구제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존경합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자선행위. 고통이나 재난을 당한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
겨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 구제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DNA에는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구제를 모두가 당연하고도 마땅히 행할
일로 여기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이겠지요.

이 마음과 생각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로 이어지기까지는 사람에 따라 다소 시간이 다르게 걸리기도 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거나 왼손이 하는 일을 온 지체가 다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과우선의 관점에서는 언제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입니다.

교회 카페에서 한잔의 음료를 구매하는 것은 구제와 선교헌금의 과정과 같다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의미 있게 여겨서 하늘창고에 보물을 채우는 마음으로 하면 더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할인할 수 없듯 할인은 하지 않고 은혜를 덤으로 받듯 덤도 있습니다. 제 주장입니다. ㅎㅎ
우리 봉사자들, 구제부원들도 마찬가지로 몸으로 구제와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신나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힘들지 않느냐고 격려도 받는 으쓱한 일이기도 합니다. 쑥스럽게 감사합니다.

처음 구제부장으로 권유겸 통보를 받았을 때의 복잡한 마음이 생각납니다. 교회공동체를 통해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빛진 마음을 해소해보고자 음흉한 계산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로나 생각으로 이 축복을 쏟아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저축하고 싶습니다.

이 비상사태에 온 교회가 구제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전 구제부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일뿐 온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카페에서 한잔의 음료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 곳곳에서 암암리

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제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의 각기 다른 환경과 달란트, 기회, 사명 등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지고 존중되어 어떤 구제도 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구제로 선교로 땀과 눈물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 구제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치유 상황 보고

생명의 길

김하철 목사

저는 작년 9월 초에 어스틴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MRA를 찍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MRA를 통해서도 위암 여부를 바로 판정 못하고 림프절이 부어있다, 그래서 암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어서 혈액검사와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위암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스틴 병원 의사는 차마 위암 4기라는 말을 못하고 적어도(at least) 3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는 적어도 3기라는 말을 3기로 알아들었고 수술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뉴욕에 가서 CT scan과 혈액검사를 통해서 HER2라는 유전인자에 의한 위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에는 29번째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3가지 치료약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14번째부터는 위암을 유발한 유전인자를 target으로 하여 치료하는 ZW25라는 실험약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험약만을 사용하여 암이 악화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많았었는데 벌써 4달째 진행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아직까지는 암이 잘 control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본 결과 초기보다는 80%정도 치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폐, 간, 췌장, 대장, 소장 등 중요한 기관에는 암이 침범하지 않았다는 점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진단 초기에 몸의 이곳저곳에 들러붙어 있던 크고 작은 암덩어리들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특별히 작년 10월의 CT SCAN 리포트를 보면 복막 뒤에 12CM 가 넘는 암덩어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2CM 이하로 줄어들어 활동을 않고 있다는 최근의 보고서를 읽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사선생님은 부작용이 적은 현재의 치료약으로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2주에 한번씩 치료를 받아야 할 듯합니다.

저와 아내의 바람은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암세포들이 모두 활동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매일 15,000보를 걷기 위하여 애쓰고 음식도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골라서 하루에 2300kcal 이상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픈 데도 없고, 음식을 맛있게 먹지는 못하지만 먹고 소화시키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운동도 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새벽에 깨어나 잠을 잘 못자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잠도 잘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정상적인 사역은 언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 봅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갈 수도 없어서 거의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열리면 2주일에 한번씩 치료 받으러 휴스턴에 가는 것 외에는 특별히 교회 사역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암치료로 약해진 몸으로 인하여 무리하면 쉽게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활동이 오히려 활력을 주어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리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저 자신이 좀 더 힘써야 할 일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 4: 23).”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확실히 치유받고 온전해질 날을 위하여 정신적 무장과 영적인 무장에 초점을 두고 마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정신적 무장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더 열심히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듯이 신기하게 오늘까지 무언가를 먹으면서 체력을 회복해 온 것입니다. 최저 체중이 작년 뉴욕에서 129파운드까지 내려 갔었는데 지금은 최고 체중이 160파운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욕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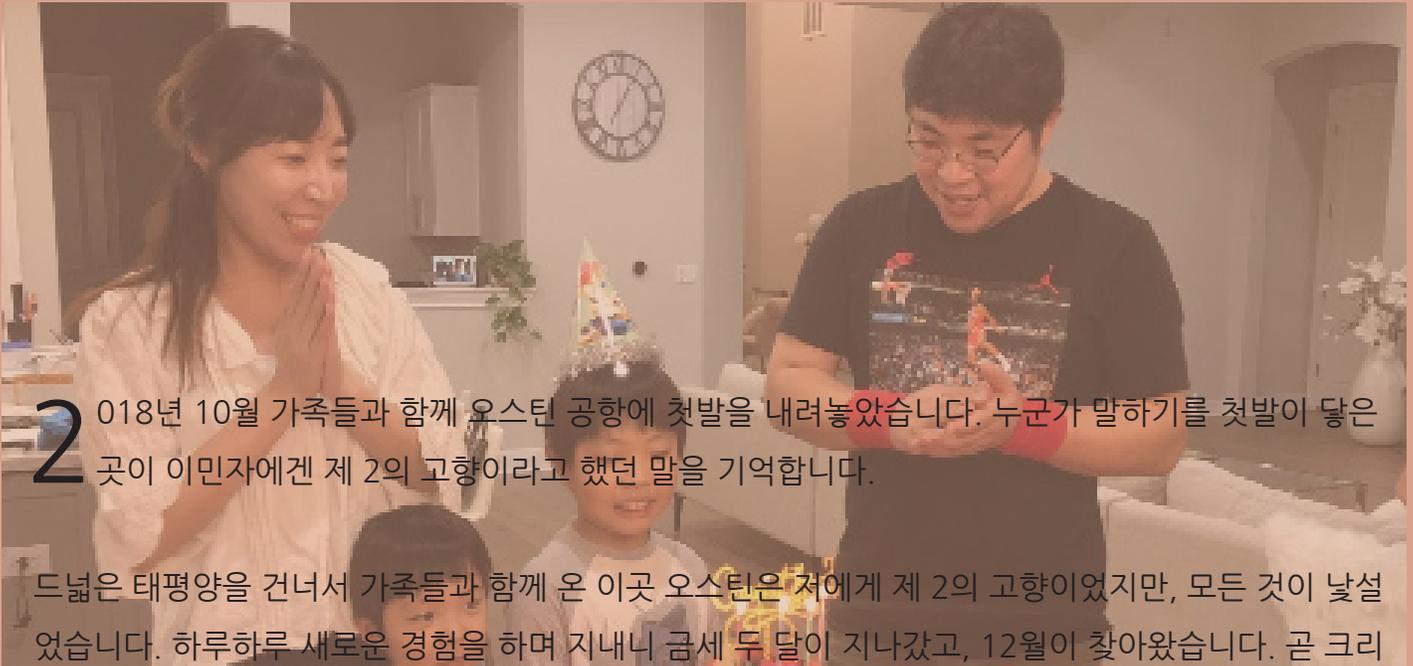
떤 때는 도토리묵과 썩떡, 어떤 때는 사골국과 국수, 어떤 때는 물김치와 견과, 어떤 때는 떡과 찰밥, 어떤 때는 연어와 장어, 어떤 때는 비빔밥과 황태국 등 그래도 끊임없이 한두 가지의 음식을 주력으로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식욕을 주시고 가족들과 성도님들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 것이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거트, 삶은 계란, 인슈어, 마, 고구마, 감자, 단호박 등은 큰 어려움 없이 먹을 수 있게 된 점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더 열심히 먹을 수 있도록 더 강한 정신력을 갖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은 저의 하루 하루의 삶이 주님의 종으로서 합당한 삶이되기 위함입니다. 병들었다는 핑계로, 때로 밥먹기 힘들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진 저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성도님들 앞에 서기가 부끄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씻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하겠고 그를 위해 마음을 굳게 지키고자 합니다.

마음을 굳게 지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암과 싸워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저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족들과 성도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간증문

나의 삶의 인도자 하나님

박재용 집사



2018년 10월 가족들과 함께 오스틴 공항에 첫발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첫발이 닿은 곳이 이민자에게는 제 2의 고향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드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가족들과 함께 온 이곳 오스틴은 저에게 제 2의 고향이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을 하며 지내니 금세 두 달이 지나갔고, 12월이 찾아왔습니다.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어디를 가면 가장 좋은 경험을 아이들에게 나눠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몇 주 전에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로 와서 바로 가족들과 함께 주일에 입교 신청서를 작성하고 비슷한 시기에 오신 다른 성도님들과 새 신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스틴 한인장로 교회에 다니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대한 경험이 처음은 아닙니다. 초등학교(당시 불렸던 방식대로)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어린이 성경책을 주시면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보라고 권유해주셔서 잠시 교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읽었던 성경과 당시에 벤허, 삼손과 데릴라 등의 종교 영화를 자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때에 어렴풋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재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로 출장을 다녔었습니다. 유독 이스라엘만 12번이나 방문하였습니다. 정말 우연인지 몰라도 제가 출장지로 갔던 곳은 나사렛 주변이었습니다. 주로 업무 때문에 자주 가보지 못했지만 관광 목적으로 한번 정도 가본 곳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걸었던 고행길 루트와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는 성묘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나사렛도 방문 했었는데 그곳에서는 유독 교회가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고행길 루트에서는 뭔가 당시에서 강력한 무언가의 끌림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미국 오스틴 땅에 도착하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로 인도한 것은 지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조금씩 저를 주님 안으로 인도하시며 매 순간 있었던 삶의 큰 전환점에서 결정을 내리게 만드시고, 이곳에서 주님과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성도로써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스틴 한인장로 교회에서 매주 나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고, 현 이승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때론 많은 생각과 회개 그리고 목소리 높여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신자로서는 매우 부족한 저는 스스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루에 많은 시간을 찬양 방송과 기독교 관련 인터넷 매체를 보면서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자 노력하지만, 때론 그런 실천을 못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2019년 12월 22일 부부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제 정식으로 그리스도 교인으로써 다시 태어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매주 교회를 나가서 일주일 있었던 잘못을 회개하면서 삶을 돌아 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인생에서 무언가 큰 터닝 포인트를 찍고 다시 나갈 수 있는 큰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신기한 삶의 기적과 같았습니다.

요즘엔 교회를 직접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와 찬송을 따라 부르지 못하는 시기지만, 지금 속한 미스바 목장 단위에서 각 가정의 형제자매님들과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고 있고, 주말에는 김우진 장로님의 주최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성경공부와 매주 수요일 미스바 목장에서 목사님 주최로 형제님들과 QT나눔 등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특히 와 닿는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면서 한걸음 한걸음씩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힘겨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인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의 시간을 틈틈이 만들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하나님을 알기까지 돌아 돌아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왔지만, 매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전염병 시기에 간절한 기도의 힘이 무척이나 크게 다가옵니다. 저 역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크건 작건 수많은 기도를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동적으로 느낀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도드린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스틴 한인장로 교회도 새로운 담임목사님과 함께 다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내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높이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간증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어스틴 교회 정착기)

이화정 전도사

지 난해 8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저희 가족은 한국 안에 있는 외국이라고 불리는 이태원에서 하나님 의 세심한 도우심 가운데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 둘씩 짐을 나누고 정리하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마무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 셋 중 첫째 유진이(24)와 둘째 유리(21)는 남은 학업을 위해 한국에 남고, 8월 21일 저와 남편, 그리고 막내 유빈이, 그리고 저희 강아지 루키는 이곳 어스틴을 오기 위해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떠나기 전날 앞으로 딸들이 살게 될 조그만 원룸에 가져갈 짐들을 쌓아 놓고 쪽 잠을 청하며 잠을 자는 건지 눈이 절로 감긴 건지 분간도 안 되는 멍한 상태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직 제 눈에는 그저 아이 같기만 한 딸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낼 생각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솟구칠 때마다 입술을 꼭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렇게 눈을 붙인지 얼마 되지 않아 어느새 새벽이 되어 아이들과 작별을 할 시간이 찾아왔고, 그 시간들은 일 년이 지난 지금도 한번 씩 생각 날 때마다 마음이 저려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늦은 나이에든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보겠다고 결정한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응원해주고 기쁘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도 달라지고, 둘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감당해야 하는 막막함이 있음에도 그 마음을 감추려고 더 밝게 웃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나온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때마

다 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지내왔기에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다시 함께 할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가족의 이별이라는 시간은 우리 가족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마음이 아프고 목이 메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여정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 막막함에 그저 서투르고 부족한 표현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우리 가족에게 주셨기에 아마 우리는 평생 말씀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는 그 막막함을 읽을 때 이제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묵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청년부 시절 남편을 만나게 되어 일찍 시작된 저의 결혼 생활은 잦은 이사로 인해 정들자 이별하는 헤어짐과 새 만남을 반복했고, 그렇게 새로운 지역에서 새 교회를 만나면 또 충실하게 잘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왔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이전 직장은 늘 이동이 많았기에 늘 짐을 싸고 풀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20회 이상 넘어가면서 부터는 세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사를 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첫째, 둘째 아이 모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총 9개의 학교를 옮겨 다니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떨어져 살지 않고 어떻게든 늘 함께 하자고 결정 했었기에 늘 잦은 변화를 거치는 시간 속에서도 남편과 저는 아이들을 품안에서 보호하며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이고이 저희 부부의

품에서 자라게 하던 아이들과 이제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결정은 저에게 큰마음의 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도착한 이곳 8월의 어스틴은 작열하는 태양빛에 눈이 부서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파란 하늘에 숨이 턱 막히는 뜨거운 열기가 지면과 공기 중에 열을 발산하며 저희들을 격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과 헤어짐의 아픔은 어느새 불가마 같은 열기에 증발되고, 이 뜨거운 온도에 맞춰 적응하며 살아야 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면서 새로운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다닐 신학교에 마련된 기숙사 아파트에 짐을 풀고 내려다보니 거실 창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어린아이와 양을 데리고 앉아있는 동상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희 집은 2층이었는데 오래된 학교라 그런지 학교 곳곳에 울창한 나무들이 학교와 공원과 집 앞을 덮어주고 있어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정리하며 온 우리의 빈 마음을 잘 아시고 계셨는지, 우리가 지나가면서 흘렸던 말들까지도 기억하신 듯, 한국에서 저희가 이사하며 다녔던 많은 곳에서 좋아했던 여러 가지들을 학교와 기숙사 아파트, 삶의 여러 장소에 깜짝 선물과 같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보았니? 내가 다 기억하고 있지. 이제 너희는 이곳에 예비한 모든 것으로 나를 기억해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평안함이 강같이 몰려 왔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일이 다니게 될

교회를 먼저 찾아가 보는 것이었는데 한국에서 남편이 함께 제자훈련을 받으며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집사님을 통해 소개 받은 곳인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를 찾아 저녁 무렵 조용히 교회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철야가 있었는지 널찍한 주차장에는 차들이 세워져 있었고, 어스름해진 저녁에도 넓은 팔을 펼친 듯한 교회 건물은 우리를 조용한 음성으로, “잘 왔다” 하시며 환영해주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 같았습니다.

첫 주일날,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맞는지를 궁금해 하며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속한 제자훈련반 공동체를 떠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던 제게 주신 마음을 인사로 나누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시겠다는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곳에 담으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떠나겠다고 인사했는데 어스틴 한인 교회의 2019년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들어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그런 제 인생이 너무나 감사해서 몸 둘 바를 모를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새 가족부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를 반겨주시는 새 가족부의 세심한 보살핌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사로 인해 교회를 옮길 때마다 새 가족부를 거쳐야 했기에 정말 피할 수 있다면 새 가족부는 이제 그냥 조용히 패스하고 싶다며 참 어색한 시간을 또 반복해야하는구나, 하고 여겼었는데 새 가족부를 담당하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뵈며, ‘참 겸손하게 섬기시는구나.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에 마음이 평안해 졌고, 또 그 섬기시는 마음과 자세를 배우며 부담 없이 교회에 적응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이승태 목사님의 나지막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직접 듣는 새 가족반 교육과정의 말씀들은 어쩔 그리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지 담임 목사님께 직접 교육 받은 것은 어스틴 한인교회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배정받은 다메섹 목장의 목자님, 목녀님, 집사님들은 따뜻함은 물론이거니와 만날 때마다 유머와 위트가 넘치셨고, 말씀으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 앞에는 엄청난 진지함으로 머리를 맞대어 생각을 나누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멋지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이곳 생활은 새롭게 만난 교회와 새 가족부와 목장식구들, 또 제가 속한 마리아 여전도회의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어색함을 벗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에게 뜻밖의 도전이 찾아 왔습니다. 영유아부를 사임하신 전도사님을 이어 섬길 사역자를 구하는 중에 어찌된 일인지 부족한 저에게까지 교회의 요청이 왔고, 저는 조용히 기도하며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집중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슬슬 이곳에서 반복되는 일상에 심술이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눈이 짓무르도록 눈물나게 보고 싶은 아이들을 두고 여기까지 온 저를 왜 이렇게 혼자 두시나요, 하며 한국에 있었으면 간사로 제자훈련 과정을 섬기면서 믿음의 도전들을 이루어가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챙겨주며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여기 오게 하셨으니 제

가 섬기고 말씀 나누며 기도로 함께 할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타일러에 위치한 YWAM에서 혹시라도 섬길 기회를 주시지는 않을까 기대하기도 하며 조용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눈물을 쏟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유아부에서 사역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망설임이 왔던 것은 제가 가진 부족함도 그렇고 정말 해보고 싶었던 소그룹 모임들을 이끄는 나눔의 형태가 아니었던지라 제가 과연 이 어린 영혼들과 함께 예배하며 잘 감당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더욱 귀를 열고 조용히 엎드리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 묵상을 마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저 아기들의 인생을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바라보시고 계시며, 나 또한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저 아기들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초대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언어로 어린 아기들과 나누어야 하나 걱정도 몰려왔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기들과 부모님과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나누게 하시려는구나 하며, 마음으로 받고 영유아부를 저의 소그룹 나눔의 공동체로 여기라는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기며 섬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에 있을 때 예수전도단 열방학교에서 SBS라는 성경연구학교를 알게되어, 그곳에 가고 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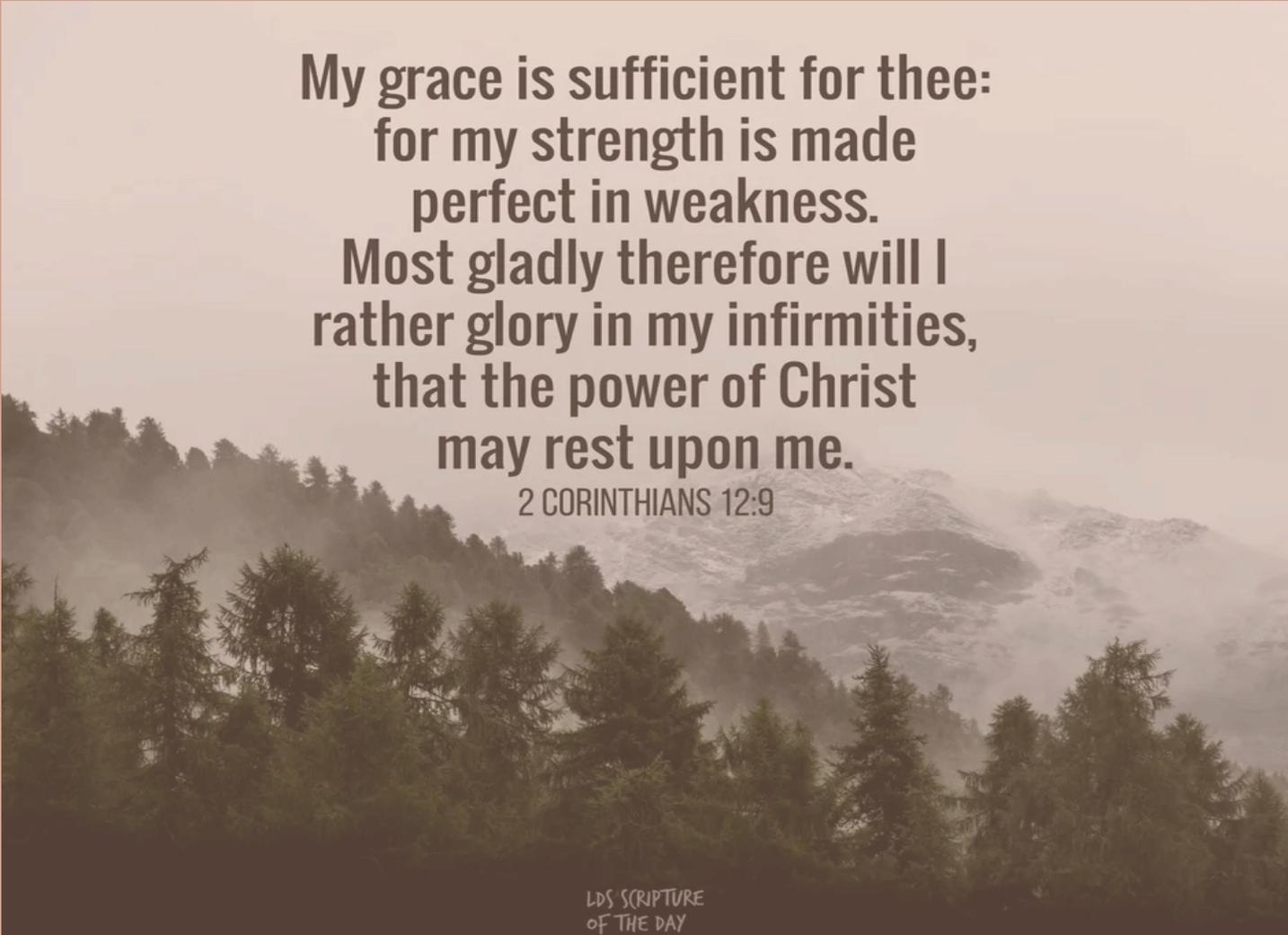
어서 긴 시간 DTS 훈련을 받고 간사로 섬겼었는데, 기도하던 중에 남편에게 주신 신학공부에 대한 새로운 길에 대해 함께 순종하느라 정작 저는 그 과정을 포기해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대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라는 선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셨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만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소중한 예쁜 아기들이 있는 영유아부 전도사라는 과분한 사역을 맡겨주셔서 열심히 섬기며 신학공부를 병행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착하게 된 지난 1년여 간의 짧은 시간동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저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 삶을 마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시듯, 저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겨자씨를 통해 증거하고 나눌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두 딸 유진이와 유리, 또 저의 영상 사역을 열심히 돕고 있는 막내 유빈이가 엄마인 저를 보며, 아무 계획없이 이 곳에 보내진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든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을 배우길 소망합니다. 또한, 청년부 전도사로 청년들을 섬기며 주신 사역에 감사하는 (김상범 전도사)아빠를 보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배워가며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증문

ALL I NEED

JESSE JUN



**My grace is sufficient for thee:
for my strength is made
perfect in weakness.
Most gladly therefore will I
rather glory in my infirmities,
that the power of Christ
may rest upon me.**

2 CORINTHIANS 12:9

LDS SCRIPTURE
OF THE DAY

Transferring to UT was a difficult journey for me. During my freshman year of college at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I couldn't bond well with my classmates. Everyone hung out and grew closer by partying and drinking together, and as someone who didn't want to even risk that temptation, I stayed away from the party scene and lost many friendships as a result. So freshman year was a year full of constant loneliness where I spent most of my time either studying or working, and I slowly developed this habit of telling myself and believing that I wasn't loved or good enough. So when I came to Austin in 2018, I struggled a lot with

community because I was very closed off and had a hard time stepping out of my head.

Over the summer after my sophomore year at UT, a couple of my house church members asked me to consider serving as a teacher in the youth ministry. I was extremely hesitant at first not only because I was super shy and introverted, but also because I didn't feel confident enough to serve in this position. Like many people in leadership positions probably experience, the word "unqualified" seemed to keep me from confidently stepping in. I prayed over it all throughout the fall semester of my junior year, but I realized I was never really going to feel "ready". So I decided to just jump in and said yes, and I shadowed some teachers during SNL and Bible Study over the next couple of months. And then came 2019 winter retreat.

I was nervous out of my mind to serve as a teacher/counselor, but all I could do was pray that God would move and speak through me to my youth group. I found out I was grouped with the now 9th grade girls and became super anxious. But in some indescribable way, the moment I first met them, I knew this was where God was calling me to be. Through our many random conversations, morning QTs, and small group discussions in those few

days, I was quickly humbled. As much as I had prayed to be used by God at this retreat, I realized how much He was using these girls to stir and move in my own heart. And I was reminded that being a youth teacher wasn't just about the ministry God does through me, but it's also more importantly about the ministry God does in me. Since then, I became the official teacher for this group of girls, and they have become some of the greatest gifts from God in my life.

Toward the end of my junior year, I was asked to step up to become the next shepherd for my house church. Excited to extend my serving, I immediately said yes. Perhaps it was because of my positive experience with the youth ministry, but I walked into this serving opportunity with much more confidence. I started planning every little detail - after house church activity ideas, ice breaker games, hangouts, trips, flow of house church gatherings, creating blessings jars... I even created a detailed spreadsheet for house church roles and lists of activity ideas. I had so many expectations for the year and lists of plan A, B, C, all the way to Z for how I can best serve and grow with this house church - all this to say that I was prepared and excited and confident. And then the same week I became the new house church shepherd, everything was shut down and

quarantine began.

The reality of COVID-19 hit really hard. I could make backup plans and come up with backup ideas for all these different things, but there was no backup plan to this pandemic. This was something I could not control. Gatherings moved online, my house church members were scattered at home, and every single thing I had planned for could no longer be used. It's like I had all this excitement and adrenaline and eagerness, but then God was like "nope" and completely shut those doors. I was very discouraged. And as we've all experienced together, virtual gatherings don't allow for the same depth of fellowship and bonding that in-person gatherings do. So throughout the summer and even during this fall semester, attendance and engagement from my members often drew close to none at all.

There were so many moments when I tried to reach out, purchase or plan multiple online games, and do anything I could to stay positive and encouraging for my youth girls and house church members, but every single week I found myself treading the waters of uncertainty. I could sit there and plan all I wanted to, but at the end of the day, I had no control over anything, and that's a scary thing to realize. And as the weeks continued and nothing

changed, I grew tired and had no more of my own strength to rely on. But slowly, I realized that the beauty of such unexpected, uncontrollable moments in life is that they leave you with nothing and nowhere to turn but to the one certain thing we have - God.

This year was the first time I truly understood and experienced what it meant in 2 Corinthians 12:9 when it says God's power is made perfect in our weakness. Although I lack a lot of confidence, and although serving in both the youth and college ministry has caused a lot of anxiety and fear in me, it was not about my abilities, qualifications, or control. God is not pleased by all that we can do. But what He delights in is all that we do in and by His strength, and for that reason we can boast all the more gladly in our weaknesses.

Through this pandemic, I found my strength in the way God has used my weakest moments to magnify His glory and to lead me to depend on His power. I see it when my mind strives to think of God and all things good and right and pure. I feel it when my eyes start to see the world through the lens of hope and faith. I notice it when my ears learn to silence the thoughts and listen closely to His voice. I hear it in the way my mouth aims to speak life-giving words of love, honesty, and truth. I live it

in the way my hands seek to touch others in love while openly receiving what is in His will and surrendering what is not, and I experience it in the way my feet stand firm in the truth and faithfully go wherever He sends me. And although I fail Him on a near-daily basis, God meets me in my daily cries of desperation and posture of surrender, and His sweet grace reminds me that in all things, it is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This truth has taught me to let go of control over the little things. And when I do, I start to find my strength and joy not in the circumstance, but in the God in charge of the circumstance. I learn to do my best in what God calls me to do, and to leave the rest of what I can't do to the One who is in control. So whether I see a screen full of happy, excited faces every week or stare at an empty Zoom room, I am okay. Because there are two certain truths I hold closely: that God is good and He is in total control - and that is all I need.

목장 소개

실로암 가정 목장

홍세미 집사



저의 친정어머니가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서 아주 좁고 물이 찰랑찰랑 흐르는 긴 터널을 걷다가 갑자기 답답함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되돌아 나왔다는 신기한 경험을 하셨다면서 여담을 풀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터널이 바로 실로암 못으로 연결되는 히스기야 터널이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옛 예루살렘 성 동남쪽에 있던 인공 못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 밖에 있는 기혼의 샘의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암반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그 끝에 실로암 못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에 물의 공급을 위해 절대적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서부터 장님을 고쳐주신 사건의 장소로서도 유명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저희 가정에게 실로암 목장에 합류한 2015년 가을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의 인연이 닿았던 민동하 장로님과 배정주 집사님의 인도로 실로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스틴에 정착을 하면서 만난 실로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의 공급처였던 실로암과 같이 저희 삶에서는 신앙과 말씀을 공급해주는 목장이 되어주었습니다.

저희 목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해서 초대할 하게 됩니다. 모두가 모이면 이해경 권사님의 식기도로 시작해서 함께 저녁 만찬을 즐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도 강윤하 집사님이 사 가지고 오신 과일이 유난히 달고 맛있습니다. 조은정 집사님과 최민정 집사님의 금손을 거쳐 탄생한 디저트로 후식을 즐길 때 즈음 분위기가 수그러들면서 민동하 장로님께서 성경공부를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최승원 집사님께서 기타를 꺼내셔서 꿀보이스로 찬양인도를 하십니다.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이제 사뭇 진지해진 분위기에서 민동하 장로님께서 성경공부를 인도하십니다. 성경공부 질문에 따라 목원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눕니다. 차승호 집사님의 도전적인 질문에 장로님이 대답을 해주시고 차경희 집사님의 차분한 목소리로 신앙생활의 모습을 나누십니다. 이주운 집사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모두 빵 터집니다. 역시 말씀을 재밌게 하십니다. 이해경 권사님의 신앙의 깊이가 감동을 주고 강윤하 집사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로 좌중을 흔드십니다. 이화춘 집사님도 어려움과 감사를 나누

십니다. 이렇게 각자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나누고 격려하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배정주 집사님이 아름답게 성경공부를 마무리해주십니다. 앞에 남아있는 과일과 차를 나누며 못내 아쉬움으로 쉽사리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음 모임은 저희 목장의 제일 큰 어른이신 김일은 장로님과 김원순 권사님께서 초대하셨다고 합니다. 목장모임에 자주 참석은 못하시지만 저희 목장을 어찌나 아끼는지 일 년에 한 두 번씩은 꼭 멋진 식당에서 거하게 대접을 해주십니다. 다음 모임도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서부터 소경 된 사람에게 진흙을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으라고 해서 눈을 뜨게 된 사건을 기억하시죠?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해서 난생 처음 빛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실로암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뜬 소경처럼 온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실로암 목장, 사랑해요~~!



선교 통신

선교서신

조종화, 조혜선선교사



살롬.

오원석 장로님, 서머나 목장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9월20일 박명식 집사님으로부터 서머나 목장에서 보내주신 후원금 한화 50만원을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 집사님께서 저희 기숙사에 방문해주시고 맛있는 점심도 제공해주셔서 잘 먹고, 저희가 섬길 뿐 아니라 사역하고 있는 하늘꿈 중고등학교에도 방문하셔서 학교를 잠시지만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기숙사에는 이번 학기엔 4명의 고등학생과 2명의 중학생, 모두 6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1. 김길룡,

길룡이는 남한에 어머니가 이미 먼저 나오신 상황에서 누나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북에서 탈북하려는 분들을 탈출시키시는 브로커이신데 그 분을 통해 얼떨결에 내려온 학생입니다. 인천에 도착 했을 때에는 친 어머니도 사실 조금 놀랐다고 합니다. 사돈되시는 분에게 브로커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길룡이가 탈북한 후 조금 후에 새 어머니와 사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매우 좋아하던 길룡이가 정신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잘 생긴 길룡이는 국정원에서 받는 교육을 받고난 후 하나원(대한민국 삶에 대해 적응하는 훈련원)이란 곳에 3개월 동안 남한 정착에 대해 훈련을 걸쳐 남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원을 나온 이후 다른 탈북학교를 1년 다녔는데 그동안 통일교 소속에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길룡이는 그곳이 통일교라는 것을 모르고 문선명에 대한 책을 읽다가 담임선생님께서 “네가 읽는 책 무슨 책이니? 좀 보자” 하시며 책을 보시고 길룡이에게 “이 책 누가 너에게 읽으라고 권했니?, 어떻게 이 책을 읽게 되었니? “라고 질문 하신다음 “이 책 읽지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길룡이가 우리 조종화선교사님께 이런 스토리를 말했습니다. ‘왜 읽지마라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조종화선교사님께서 “어떤 책인지 보여주렴” 해서 보니까 문선명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조선교사님은 놀라서 ‘길룡아! 이 책은 절대 읽으면 안된다.’ 하시며 통일교에 대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가며 보여주면서 길룡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길룡이한테는 100만원이란 돈은 너무나 큰돈이며 그 장학금을 못 받는다는 것이 아쉬운데 저희 부부가 기도하면서 길룡이와 상담을 했고 본인도 인터넷에서 보고 직접 그 사무실에 전화걸어 ‘거기가 통일교인가요?’ 물어보면서 확인을 했지만 아니라고 말하더라고 합니다만, 이제는 통일교와 연결을 끊고 지냅니다.

저희가 출석하는 탈북민 50%, 남한의 신자 50%가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길룡이를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9월달부터 교회에서 장학금을 (매월 10만원) 주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길룡이가 남한에 온 후 여기저기서 후원 해주고 잘 대해주니까, 길룡이가 어느덧 사람들을 보면 무슨 기회가 있으면 이분들로부터는 또 무엇을 얻을까하는 기대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듯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아직 신앙이 약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1. 송 일,

송일이는 중1때 부터 저희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입니다.

송일이는 조종화선교사가 양자로 깊이 생각해오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시간을 아껴 사용하고, 생활에 질서가 있고, 예의 바른 뿐 아니라 인격이 훌륭합니다. 자기 이웃의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금도 아주 바르게 건강하게 사용합니다. 거짓말을 안하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도 매 중간고사 때마다 송일이이에게만은

올백점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매우 기가 죽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모범생 약 8명을 선발하여 갑자기 토익 시험을 보게 했는데 송일이가 그 시험을 잘 못 본 모양입니다. 답을 대충 찍었다고합니다. '제가 아는 영어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어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답을 하면서 그 후 매일 같이 기숙사의 아이들이 잠을 자면 조용히 거실에 나와 공부를 하곤 합니다. 초저녁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씻기도 하고, 학교 공부에 대한 대화도 나누면서 소란하기 때문에 송일이는 그런 시간에는 잠을 잡니다. 아이들이 잘려고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거실로 나와서 운동도 하면서 기숙사가 조용해지면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합니다.

매 주마다 그 8명의 아이들이 특별 공부를 하는데 매번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또 하나 나눌 것은 탈북학생들의 신앙양육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탈북 학생들의 가정이 한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접 만나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한데 송일이네는 남한에 어머니, 누나와 같이 삽니다. 누나와의 관계도 매우 좋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송일이 어머니가 이북에서 여 군인으로 봉직할 정도로 매우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송일이가 자기는 어머니로부터 아주 강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나도 현재 외국어대학 중국어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도제목은: 영어를 더 깊이있게, 글로벌한 인재가 될 수 있게 공부하도록. 학교 공부도 잘하지만 예수님 앞에 서도록 주일마다 교회출석 하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고2. 심청송,

청송이는 이번 학기에 하나원에서 졸업하고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혜산에서 온 학생이며 어머니와 (간호원)같이 탈북한 학생입니다. 청송이의 가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10여년 전에 탈북하여 이미 남한에서 살고 계셨던 분입니다. 아버지가 (수의사) 부르시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북에 남동생(16세)은 외할머니께 맡기고 나왔다고 합니다. 청송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며 남한으로 왔으니 건강하게 잘살아야 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이북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잘 나눕니다.

기도제목은: 청송이가 공부를 더 잘하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청송이 동생(16세)이 이북에서 외할머니와 사는데 남한에 데려오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무사히 오도록.

ps, 청송이네 가족은 청송이 동생이 한국 보다는 미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고3 김 정진

정진이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북에서 다 돌아가셨고 이북에서 몇 년동안 혼자 살아왔던 학생입니다. 다행히 남한에 큰 아버지, 큰어머니, 사촌형1명이 (하늘꿈 학교 졸업하고 현재 대학생) 있습니다. 그 형이 하

늘꿈 학교를 소개해서 우리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입니다. 기숙사에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북에서 동네 여학생을 만나 교제를 하는데에만 집중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집에서 그 것을 알게된 후 학교와 의논해서 기숙사에서 나와 형과 함께 지내면서 공부하는 자세를 가르치겠다고 해서 큰집으로 와서 1년 살게 되었고, 1년 후 기숙사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고3인데도 대학을 포기하고 싶어 하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서 저희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시간만 되면 상담을 해서 대학에 지원할 때에 자술서를 넣어야 하는데 본인이 자술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자술서 작성을 못해 입학원서기간을 놓칠까봐 저희가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서, 2군데 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했고, 입학면담을 했는데 송실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학에 가기 싫어하며 기숙전문학교로 갈까하고 말을 합니다.

기도제목은: 정진이가 이 어려움을 뚫고 대학에 가서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중1 장현우

현우는 16세이며 아버지는 중국분이시고 어머니는 탈북하신 분입니다. 현우는 체격이 아주 크며 몸무게도 성인의 몸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97% 못합니다. 감사한 것은 학교는 열심히 다닙니

다.

기도제목은: 한국어를 잘 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중1. 천가문

가문이는 14세이며 남한에는 어머니 한 분만 계십니다. 아버지는 중국분이시고 가문이도 한국어를 읽는데 대화는 어렵습니다, 가문이는 예수님을 알며 세례도 받았습니다. 기숙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보게됩니다.

기도제목은: 가문이가 속히 한국어로 대화하며 본인 집에 혼자 다니도록 (어머니가 일하시면서 가문이를 데리러 옵니다).

저희 기도제목은:

- 조 혜선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서.(여기 저기 진통이 있습니다)
- 금년 한해도 감사가 넘치도록.
- 성령 충만 하도록.

예수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그 분을 위한 나의 그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수 없다. -- C.T. Studd (WEC 창시자)

Hye Sun Cho
Asian American Mobilization
WECInternational(USA)
709PennsylvaniaAve.
FortWashington,PA19034
wechyesuncho@gmail.com
new cell: 010-4440-0191(한국 핸드폰)
skype: bygrace52
www.wec-usa.org

베트남 선교

박세계 선교사



“하 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출 31:3-5).

후원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 최근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5일에 다낭에서 대규모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공항이 폐쇄되었습니다. 다시 전국적으로 경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관계하는 CMA교단과 카톨릭은 8월 한 달 동안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를 했습니다. 9월 달에 들어서는 국내 확진자는 거의 없습니다. 모임도 이전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30명 이하로 모임을 허락했습니다. 도시 개척 교회들과 소수민 교회들은 모임을 재 개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속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하노이 신학대학의 2020학년도 졸업식은 결국 무기한 연기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졸업식이 순조롭게 치러지도록 기도해주세요. 감사한 것은 2020년 새 학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격년제로 학생을 모집함으로 이번에는 신입생은 없습니다. 3기 35명, 4기 40명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무 탈이 없이 한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새우짱 전도사가 섬기는 소파이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건축에 필요한 경비는 약 20,000,000원입니다. 중간에 다소 곡절이 있었지만 10월 하순경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 선교회에서 건축해주기로 했습니다. 모자라는 500만 원은 모 권사님께서 지원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후원하시는 분들에 주께서 후한 상급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4. 9월 22일(화)부터 23일(수)까지 호치에서 제12차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아 치유 받고 회복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대상은 그 지역과 산간 지방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 12명이었습니다.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 운동이 활발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세미나는 코로나 19 이후로 9월 말 현재까지 총 열두 차례 했습니다. 수련회를 실시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아 치유 받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주세요.

5. 제13차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 치유 받고 회복하는 세미나가 10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1기 졸업생 미 전도사와 주아 전도사가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인도자는 1기 졸업생 미 전도사와 주아 전도사입니다.

6. 제14차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 치유 받고 회복하는 세미나가 11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은 1기 졸업생 전체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 해를 계획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와 진행은 1기생들이 합니다. 준비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먼 길을 오가는 전도사들의 교통편과 숙소, 안전 등 잘 준비해서 진행되도록 기도해주세요. 특별히 필요한 경비 약 200만 원이 잘 마련되도록 기도해주세요.

7.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를 베트남어로 번역을 마쳤습니다. 권 전도사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1차 교정을 했습니다. 남쪽에서 사역하는 분이 한 번 더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남북의 교회가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출판 허락을 비롯하여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베 교회에 유익한 도서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8.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를 캄보디아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번역자는 고신대학교를 졸업한 현지인이며 캄장 신학교 교수님입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캄보디아 교회에 유익한 도서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9. 1기 졸업생인 팽 전도사가 다단계에 빠졌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1기생 졸업생들 중에도 여러 사람이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고 합니다. 속히 정리하고 교회 봉사에 전념하도록 기도해주세요.

10. A643운동이 잘 정착되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루 세 시간 경건의 시간 가지기 운동입니다. A64는 사도행전(Acts) 6장 4절 말씀을 의미합니다. 소수민족 전도사들은 농사를 하면서 교회를 섬깁니다. 이로 인해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합니다.

11. 복음을 설명하는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제도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선교지도 예외가 없이 교회 안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시도도 해 보았습니다. 선교지 교회에 복음을 설명하는 유익한 자료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12. 귀국 후 두 차례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 선교회와 국내 이주민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입니다. 물론 비 대면으로 했습니다. 주제는 코로나 시대에 이주민들에 대한 선교였습니다. 비록 인터넷으로 진행되었지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하여 그 동안 번역해 두었던 자료와 출판한 자료들을 소개했습니다. 여러 목사님과 선교사님께서 교재를 요청했습니다. 주로 캄보디아인들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중국 선교사님도 한 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베트남어 교재를 필요

로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베트남인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만들어둔 여러 교재가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13. 2020년 10월 26일(월) 하루 대구 FAN 카페에서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는 손승호 선교사입니다. 주제는 동남아에 퍼져있는 소승불교와 중국인 태국 선교사 존성입니다. 참석 인원은 열 명으로 제한해서 합니다. 세미나가 은혜 가운데 마쳐지도록 기도해주세요.

14. 저희들의 비자와 항공편이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페루 선교

김성일, 김성숙 선교사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와 물질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선교지에서도 예상치 않았던 변화로 비대면 교육 방법이 정착되어지고 있으므로, 복음 전파를 위해 사역의 방향을 정하고 상황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AMED는 코로나 초기부터 장기화를 예상하고 비대면 강습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2021)의 여름 성경학교는 AMED의 스텝들이 영상 강습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교사들이 인터넷으로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AMED 영상 자료들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많은 지역 교회들이 인터넷과 핸드폰 사용에 매우 열악하므로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특별기도 부탁드립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교사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어린이들에게 전도와 양육이 필요합니다. 뉴노멀 시대에 AMED의 스텝과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므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 프로젝트

코비드로 인한 격리가 시작되면서 수도의 변두리지역과 지방의 교회의 지도자들 양육을 위하여 인터넷 강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www.amedglobal.org 에 실립니다. Google Classroom을 활용하여 교과과정을 만들고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이므로 모델이 되는 영상 강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히스패닉 교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별세

제(김 성일)가 선교사가 되어서 기뻐하시고,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저의 어머니(정영순 권사)께서 지난 9월23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코비드로 인하여 고국에 가지 못하였지만, 여러면으로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콜롬비아에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김 규범 & Anna (Lucia & Noelia)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들

인터넷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새 프로젝트를 위하여
겸손과 성실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페루에서

2020년 11월3일

김 성일 & 성숙 선교사 올림”

기도 편지

한준수, 이옥희 선교사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팬데믹의 고통 가운데서도 올해도 어김 없이 감사의 계절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계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곳 태국은 반정부 시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로 주님 밖에는 바라볼 곳이 없기에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그 동안 재정 부족과 지속된 우기로 인해 공사를 쉬고 있던 후회이행 교회 예배당 건축이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 집사님 가정이 지붕 공사 일부를 헌금해 주셔서 자재를 주문하고 카렌 형제들이 약속 날짜를 잡으면 곧 공사를 재개할 것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남은 건축 예산도 확보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뽕룩 교회의 예배당 건축도 기둥 14개를 세우는데 필요한 헌금이 들어와서 조금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어 여러 가지 공사의 어려움이 있지만 블래 전도사 내외의 헌신으로 꾸준히 진척되고 있고, 어린이 기숙사 사역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키우고 있는 아이들 13명을 중심으로 동네 아이들을 모으고 관심 있는 성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뽕룩도 카렌족 마을이지만 태국에 정착한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 태국화되어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블래 전도사 내외가 아이들 중심으로 전도하며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비는 고사하고 아이들 양육하는데 필요한 재정도 없어 이곳저곳에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내년부터 매월 조금씩 지원하려고 합니다(10만원). 관심 있는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태국 선교사로 헌신한 지도 내년이면 39년째가 됩니다. 그 동안 주님의 은혜로 태국과 카렌 마을에 11개의 교회를 개척하거나 부흥을 도왔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은퇴 전에 최소 12개의 교회를 개척하기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펫부리 도의 끝자락에 있는 갱끄라짠 지역(군 소재지)에 카렌 교회와 태국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던 중 주님께서 땅 100평을 마련해 주시고 교회 개척 멤버가 될 세 가정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중 한 가정이 저희가 빠덴 기숙사에서 수년 동안 키우고 람루까에서 5년동안 같이 살면서 대학공부를 시켰던 다윗 형제 가정인데 우연히? (주님의 뜻!) 갱끄라짠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믿음 하나 만은 뒤떨어지지

않기에 주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좋은 부인을 만나 지금은 딸까지 얻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인(이름은 'Faa'-'하늘'이란 뜻)도 과거에 빠덴 기숙사에 일년 정도 있었는데 머리도 좋고 생활력도 강해 자기 스스로 장학금을 찾아 대학까지 졸업하고 지금은 갱끄라짠 군의 한 학교에서 교사(공무원)로 일하는 또순이입니다. 국가공무원 교사가 된 것은 카렌족으로서 대단히 출세한 것입니다. 다윗 형제 내외가 갱끄라짠 교회의 사역자로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예배당과 학생 기숙사가 세워지고 필요한 재정도 확보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인 람루까 교회는 매우 더딘 성장 속에서도 한명 두명 일꾼들을 보내 주셔서 소망을 불태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로 세울 네 자매(우, 비, 씨리, 켄 자매)들의 믿음의 성장과 말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태국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사명 이룰 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태국에서 한준수 이옥희 드림

기도제목:

1. 후왜이행 교회 예배당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남은 공사비도 마련되도록.
2. 뵕룩 교회의 예배당 건축이 큰 문제없이 잘 건축되고 블래 전도사 내외가 낙심하지 않고 큰 믿음으로 계속 사역하도록.
3. 깡끄라짠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카렌 아이들을 교육시킬 기숙사도 속히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도.
4. 람루까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5. 2월 성탄의 계절 카렌 교회들의 전도 행사에 필요한 경비들이 채워지도록.



79/190 Mu.4 BanFaapiyrom, Beungkamproi, Lamlukka, Pathumthani
12150, Thailand
태국 66-86-060-3355, 66-87-090-3355.
한국사무실 02-443-0883
미주사무실: 10582 Katela Ave., Anaheim, CA 92804,
USA Tel.714-774-9191
email: hanleethailand@gmail.com, junsoohan@hotmail.com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990-090818-929 GP 한준수 이옥희



선교 통신

니카라과 쭉쭉바 사랑

김인선 선교사



“**쭉쭉** 쭉바 하나에 세상 전부를 가진것 같은 저희 빈민가 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전해 드립니다.”



기도 편지

김명환, 남화수 선교사



동역자님, 계속되는 혼란 속에서도 모두 평안하신지요? 올해 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 선교단체 이디오피아 사무실이 닫히고 소속 선교사들이 모두 본국으로 철수했다가 무려 6개월 만에 사역이 재개되었습니다. 김 선교사는 미국 위클리프 본부와 이디오피아 지부의 재입국 승인을 위한 수많은 이메일 교신, 입국 시 필요한 코로나 검사, 입국 직후 14일의 격리 기간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이디오피아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9월 말 공항에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이디오피아 특유의 냄새를 맡으며, 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벅찬 감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 선교사의 부재 속에서도 마장 동역자들(요셉, 에피손, 하와리아트)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초벌번역해 놓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김명환 선교사는 마장 동역자들, 자문위원과 함께 작년 말에 자체점검을 했던 시편에 대한 자문위원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10월 전까진 시편이 출판되어 시와 음악을 좋아하는 마장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함은 물론이고 자발적 문해교육을 위한 동기를 갖는 일

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문위원 점검, 마장부족 대표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의 점검, 저희 팀의 최종점검이 잘 진행되어 예정대로 시편이 출 판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녀인 예본이는 시카고대학 대학원 마지막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 년 후 졸업과 함께 사회복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차녀 예담이는 9월에 드디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한 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여 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성인으로 살아갈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동안 자녀들 교육과 양육 그리고 여러 다른 계획들로 부득이 떨어져 있었던 남화수 선교사는 새로운 임무에 필요한 공부와 훈련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이



디오피아로 다시 들어와서 전과 같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도편지에 실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큰 피해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자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보호와 공급하심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장어 구약성경 봉헌을 위해서 같이 달려가는,
김명환, 남화수 (예본, 예담) 선교사 드림



편집자 후기

간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주님께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일 년도 어느덧 그 작별을 고하며 뒤돌아서는 12월입니다. 원망과 아쉬움의 뭉치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마음의 연못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사라져갑니다. 겨자씨를 복간할 때의 무거운 짐들이 화롯가의 불씨처럼 성도님들의 기도로, 감사로, 혹은 권고로 훈훈하게 다가옴을 지켜보며 거듭 마음을 추스르게 하였던 일 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불씨를 쪼이고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편집인 모두에게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원고 투고로, 투고자 물색으로, 편집으로 또 가끔은 원고 독촉도 하면서 보내었던 복간 첫해가 후일 빛바랜 사친처럼 또 그리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미 받은 보상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일 년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원고 투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는 이가 더욱 복이 있다는 주님 말씀이 보상이 되었길 바라고 또 앞으로 참여해 주실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겨자씨 편집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언제나 든든히 곁에서 응원해 주신 이인권 장로님 이하 모든 겨자씨 편집위원 분들,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겨자씨 출간을 기쁘게 지켜보아 주시고 널리 읽어 은혜 받으신 독자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시작이었지만 겨자씨를 통해 코비드라는 엄중한 시기에 서로에게 권면하며 믿음의 불씨를 따뜻하게 지필 수 있는 여건과 공간을 마련해 주신 주님의 큰 계획에 그저 머리 숙여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의 묵은 감정과 어려웠던 현실은 이제 어스틴을 관통하는 콜로라도 강물과 함께 흘러 보내고 새롭게 다가올 한해를 기약하면서 송년인사를 갈음하고자합니다.

문서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함께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겨자씨를 통해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도 아래의 이메일로 사업체명과 연락처를 보내주시고 아울러 겨자씨에 원고 투고를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원고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올리신 글에 대해서는 편집위의 검증과 동의하에 겨자씨 원고로 채택됨을 알려드립니다.

Send your contribution (gospel, testimony, art, or photos...) to

kingkids780@hotmail.com

겨자씨 편집위원 일동

AKPC 2020년 겨울행사

월	주일	절기	주일 행사	주간 행사	EM & 청년 & 교회학교
10	4	성령강림 후 제18주	녹색 세계 성만찬 주일 성찬식 정기당회 권사회 주관 교사 위로회		
	11	성령강림 후 제19주	녹색 가을 소풍		
	18	성령강림 후 제20주	녹색 당회 수련회		
	25	성령강림 후 제21주	녹색	전교인 대청소(10/31) 교육부 주관 Harvest Festival(10/31)	갈렘대학 소풍(10/30-31)
11	1	성령강림 후 제22주	녹색 일광 절약 시간 해제(Daylight Savings End) 정기당회		Youth Baptism & Confirmation Class(11/2) EM Fall Picnic(11/7)
	8	성령강림 후 제23주	녹색 새가족 환영회 #2		
	15	성령강림 후 제24주	녹색		
	22	성령강림 후 마지막주	녹색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추수감사주일 합동예배 특별 감사헌금 목장별 "감사바구니" 봉헌 추수감사절 잔치 한마당	전교회 추수감사절 Break (11/25-28)	
	29	대림절 제1주	보라색	성탄트리 장식(11/30) 전교인 대청소(12/5) 입교 및 세례 후보자 훈련(3회)(12/5-19)	
12	6	대림절 제2주	보라색 정기당회		갈렘대학 종강예배(12/11)
	13	대림절 제3주	보라색 2021년 예산인준 정기 공동의회 EM 세례 입교 후보자 훈련		
	20	대림절 제4주	보라색 성탄주일(청장년 합동예배) 입교 및 세례 후보자 당회면담 연합찬양대 성탄칸타타 세례식 성탄축하 발표회	성탄절 전가족 합동예배(오전 10시) (12/25)	
	27	성탄 후 제1주	흰색 송년주일	송구영신예배(12/31)	중고등부 동계 Retreat ((12/28/30)

AKPC 지역 광고

Tous les Jours
Austin

512-373-8080
6808 N Lamar Blvd Suit B-115
Austin TX 78752
www.tljust.com
tljaustintx@gmail.com



Kakao Talk ID: @hanyangmarket Email: austinhanyangmarket@gmail.com

MARKET
Hanyang

Tel: 512.371.3199 6808 N. Lamar Blvd
Fax: 512.371.3250 #A-110
Austin, TX 78752

Cuppa Austin Coffee Shop

\$1.00 OFF ANY DRINK

9225 West Parmer Lane
Austin, TX 78717

www.CuppaAustin.com
512-382-6729



Universal Motors/Services
Asian Imports & Domestic Service Since 1993

David Chong
ASE Certified Technician

24 HR TOWING

A/C Service 7138 Hwy 290 E.
Brakes & Tune Ups Austin, TX 78723
Engines & Transmissions (512) 459-3939

Questions? Comments? Find us on Yelp!

A+SM
Dry Cleaners & Alterations

Same Day Service Available
30+ Years Experience

Mon - Fri 7am - 6:30pm
Sat 10am - 2pm
Sun/ Holidays CLOSED

(512) 249-9013 8701 W Parmer Ln. #2122
Austin, TX 78729
Inside Artisan Apartments



Bon Japanese Cuisine

3500 Ranch Road 620S. B-100
Bee Cave, TX 78738
(512) 645-0208

Grand Slam Pizza

100 Commons Road, Suit 11
Dripping Springs, TX 78620
(512) 894-0743

 전 수 중 공인세무사(EA), MBA
명성 세무·교육 LLC
Tel. (646) 525-5900

Hightone Tax & Ed LLC
13800 Lyndhurst St. #135 Austin, TX 78717
smpchun@gmail.com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전 11:1)

주/일/예/배

- 1부** 오전 8시 30분 **EM** 오전 9시 45분 **영유아** 오전 8시 30분
- 2부** 오전 11시 15분 **중고등** 오전 11시 15분 **유치유년** 오전 8시 30분
- 청년** 오후 1시 15분

주/중/예/배

- 월-토** 새벽예배 - 오전 6시 **화** 화요기도회 - 오전 10시 30분 **금** 금요찬양기도회 - 오후 8시

교/회/학/교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시
토요 한국학교	토	오전 10시
장년 성경공부	주일	오전 10시 45분
EM 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45분
EM 영어성인	주일	오전 11시 45분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30분
갈렙대학	금	오전 10시
장년 성경지도자반	금	오후 9시
목장모임		매월 1회

Austin Korean Presbyterian Church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 512-454-1727
 Fax: 512-454-6888
 HP: www.akpc.org
 email: akpc@akpc.org

